

오탈자를 발견했어요.
교과서로 선정되는 기준이 궁금해요.
교과서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교과서 어디서 사야 하나요?
교과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교과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교과서를 잘못 사서 환불하고 싶어요.

1566-8572
TIOS 상담전화
www.교과서114.com
www.textbook114.com

교과서 구입·주문, 수정·보완, 내용·정보, 파본·교환, 정책 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TIOS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교과서의 모든 것
TIOS에서 해결하세요!

민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One-Stop Service

TIOS는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의 줄임말로, 교과서 민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해결합니다.



행복한 교육 2019년 12월 특별기획 2019 교육부가 걸어온 발자취



행복한 교육

Vol. 449. 2019. 12



2019 교육부가 걸어온 발자취
2030 대한민국 교육과 우리의 미래 © 교원수급
2019 <행복한 교육> 인생샷을 찾아라

Story

DECEMBER 2019 Vol. 449

16

20

06



COVER STORY

대전선화초등학교(교장 이민) 5~6학년 학생들이 은행선화동행정복합센터에서 마련한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 마을 어른들과 함께 김장을 만들고 있다. 이날 만든 300상자의 김장은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손도 시럽고 허리도 아프지만 아이들의 표정에 뿌듯함이 깃들여 있다.



28



74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ontents

특별기획

- 02 2019 교육부가 걸어온 발자취
- 04 초·중·고 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 열려
- 06 학습과 놀이, 휴식 있는 삶의 공간 '학교 만들기'
- 08 유치원~대학까지 교육계 전반 신뢰회복 추진
- 10 대학을 주제로 지역과 정부가 함께하는 혁신
- 12 지자체 및 교육청 협력의 초등 돌봄서비스
- 14 교육 분야 주요성과

현장이야기

- 16 꿈이 영그는 현장 대전선화초등학교
- 20 삶과 교육 영경미 안산 시곡중학교 교사
- 24 우리교실, 프로젝트 광주무등초 5학년의 PBL로 가득 찬 1년
- 28 아하! 진로체험 대전동부소방서 미래소방관체험교실
- 30 명예기자 리포트 2019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 성과발표회 개최 외
- 36 EVENT 2019 <행복한 교육> 인생샷을 찾아라

정책이야기

- 40 정책N전망 교육시설,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게
- 42 이슈1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 46 이슈2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 50 이슈3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 52 대학교육 교육을 혁신하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 56 초점1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③ 대전광역시교육청
- 58 초점2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④ 광주광역시교육청
- 60 초점3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 61 꽃 피는 교육자치 소담중, 전국 중·고생 심폐소생술 대회 '대상' 외

정보이야기

- 64 교육포커스 2030 대한민국 교육과 우리의 미래 ㉠교원수급은 이상 없나?
- 68 교육 소확행 탁 쌤과 산골 학교 아이들의 좌충우돌 한 해 살이
- 70 아이의 다락방 자살하고 싶은 아이
- 72 교사상담실 사춘기를 어렵게 보내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
- 74 일상의 씬표 비상을 선물하는 땅, 서천
- 78 뉴스 브리핑 2019 학업성취도 평가 발표...중·고생 영어 성취도 상승 외
- 80 행복 게시판

2019 교육부가 걸어온 발자취

- 1_ 초·중·고 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 열려
- 2_ 학습과 놀이, 휴식 있는 삶의 공간 '학교 만들기'
- 3_ 유치원~대학까지 교육계 전반 신뢰회복 추진
- 4_ 대학을 주체로 지역과 정부가 함께하는 혁신
- 5_ 지자체 및 교육청 협력의 초등 돌봄서비스
- 6_ 교육 분야 주요성과

2019년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에도 교육계는 크고 작은 이슈들로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한 해였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교육의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으로 뜨거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고3 학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되었습니다. 이는 초·중·고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의 첫 출발을 의미하며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해 학교공간혁신사업, 교육 신뢰회복추진단 출범, 대학혁신지원 방안, 초등 돌봄교실 등의 2019년 교육부 주요 정책을 소개합니다.



초·중·고 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 열려

'19년 2학기 고3 대상의 고교 무상교육 첫 시행
'21년까지 단계적 확대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연약 160만 원 지원, 서민가구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특별기획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벌이로는 늘 살림살이가 빠듯해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의 등록금 고지서를 받으면 아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지만, 목돈지출이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둘째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복 구입비(동복, 하복)를 포함해서 5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냈어요. 그나마 올해 고3인 큰 아이가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이뤄지면서 가계 부담이 줄었습니다. 요즘엔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대부분 고등학교에 진학하잖아요. 늦은 감이 있지만, 드디어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졌네요. 환영합니다.”

충북 진천에 거주하는 학부모

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하게 교육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는 초·중·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며,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며,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 첫해인 2019년 2학기에는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 2,520억 원이 긴급 투입되었으며, 향후 '20년부터 '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에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2조 원)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기로 하였다. 지난 10월 31일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재원 마련이 가능해졌다.

연간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경감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

만 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 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고려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비롯하여 한부모 가족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농어업인 자녀 학비보조, 공무

원 자녀 학비보조, 민간 기업 자녀 학비 보조 등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고등학교 지원을 받는 상황이며 오히려 중간계층이 고교 학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무상교육은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모든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의 일환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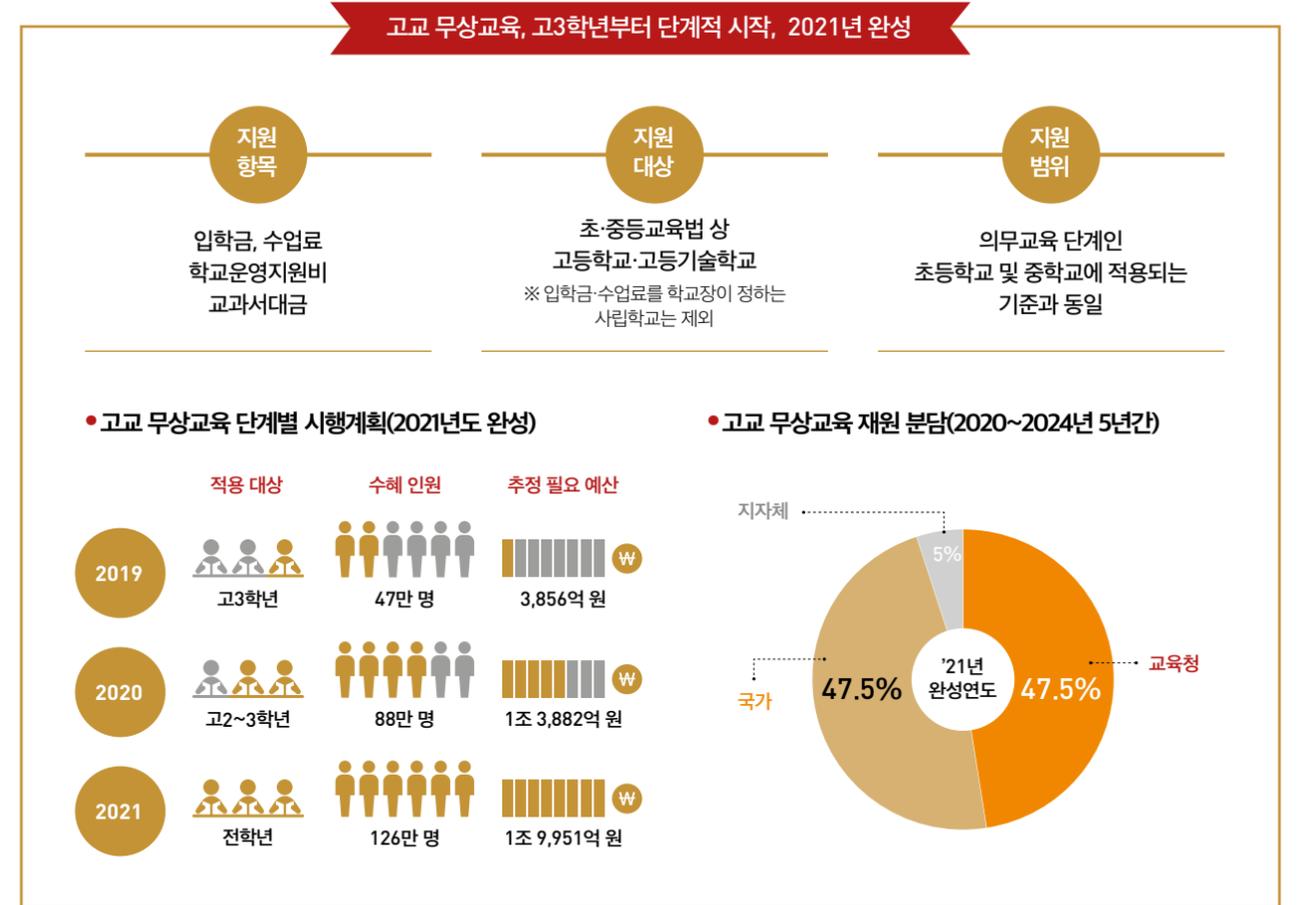
올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 실현, 단계적 완성

2019년 교육정책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고교 무상교육의 실현을 꼽을 수 있다. 충북 진천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의 사례처럼 올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전격 시행되면서 47만 명의 학생이 처음으로 혜택을 받았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4월 1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고 3학년 47만 명을 시작으로 '20학년도에는 고 2·3학년(88만 명), '21학년도에는 전 학년(126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3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왔으나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다 보니 예산상의 문제로 실현하지 못하다 올해 17개 시·도교육청과 당·정·청 협의로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 완성 이후 15년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중학교 졸업자의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요즘, 고교 무상교육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





학습과 놀이, 휴식 있는 삶의 공간 ‘학교 만들기’

**’19년 900억 투입 150교 학교공간혁신 추진
학생·교사 참여 설계로 학교공간을 바꾼다
학교공간혁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학교공간혁신의 핵심은 사용자 참여 설계이다. 학교 공간의 주인인 학생과 교사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 활동을 통해 공간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표준설계도에 의해 통제와 효율성을 기반으로 네모반듯하게 획일적으로 지어진 학교 공간은 교사와 학생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 변화

에도 부응하기 어렵다. 이러한 획일적 교육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2019년에는 학교공간혁신에 대한 논의가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뤄졌다.

학교 공간을 미래 지향적인 시설로 바꾸다

학교공간혁신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강한 의지가 담긴 정책으로 유 부총리는 올 한 해 학생·학부모·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현장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학교공간혁신 정책에 힘을 실어 왔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2019.1.)’

에 따르면,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올해 9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었으며, 향후 5년간 총 3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약 1,250개 학교 공간을 미래 지향적인 시설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학교공간혁신’이란 학교사용자의 참여 설계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공간을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및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공간혁신은 학교공간에 대한 주인의식과 더불어 예술성과 문제해결력, 과학과 예술의 융합적 사고력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꿈을 담은 교실사업’이나 광주시교육청의 ‘아지트 프로젝트’ 등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던 공간재구조화사업을 모태로 하고 있다. 교육청의 특색있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은 학생과 교사 주도로 학교 공간을 바꾸고 교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으며 공간혁신이 곧 교육혁신의 과정이었음을 일깨웠다.

공간혁신추진단·총괄기획가 등 행·재정적 지원체제 구축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 3월 27일 학교공간혁신추진단을 구성해 학교공간혁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교공간혁신추진단은 부총리 및 총괄기획가, 실·국장 및 부교육감 등이 참여하며, 교육부는 이들 추진단을 통해 정책

을 수립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청은 시·도 단위의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관과 부서 간의 역할 조정을 맡고 있으며, 학교는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 구성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건축·법률·예술 등의 분야 전문가 20명이 전문가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공간혁신사업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먼저 ‘총괄기획가’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 참여 설계 및 학교공간혁신추진자(퍼실리테이터) 교육 등 총괄기획에 필요한 지원 제도를 두었다. 학교공간혁신추진자는 학교 구성원과 시공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과정 상에서 논의된 설계를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반 과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무엇보다도 미래사회 주역인 학생이 교육활동을 통해 학습과 놀이,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 만들기에 참여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올해에는 전국의 150교가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참여했으며 ’20년에는 200교, ’21년에는 250교, ’22년에는 300교, ’23년에는 350교가 참여할 예정이다. ㉞

유치원~대학까지 교육계 전반 신뢰회복 추진

올 1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출범...14차 상시 점검회의
회계·채용 비리, 학사·연구부정, 성희롱·갑질 등 취약분야 감사 실시
'처음학교로' 의무화, 학종 실태파악 등 실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의 관련 의제에 대하여 분야별로 총괄을 맡았다. 올해 14차례에 걸쳐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의 상시 점검 회의가 진행됐다.

주요 의제 및 운영 성과

추진단은 교육부 혁신, 교육계 부정비리 대책 등 신뢰회복과 연관된 과제를 총괄 조정하여 사안에 대한 포괄적 진단과 처방을 통해 교육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왔다. 기존에 사학비리 척결 및 제도개선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가 있었다면, 올해 출범한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에서는 교육계 비리 전반에 대한 신뢰회복을 추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 교육 비리에 대한 언론, 제보 등 발생 시에 조사·감사 계획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엄정하게 처분하는 등 제도개선 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하였다. 학교 운동부 (성)폭력으로 촉발된 한국체육대 종합감사,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특별감사,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미성년 논문 및 부실학회 특별 감사 등에 대한 조사·감사 계획 및 처분 결과를 추진단을 통해 국민에게 발표하고 공유하였다.

아울러,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및 특목고·자사고 등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주요 제도개선 의제는 모든 국공립·사립유치원 입학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사용을 의무화해 2017년 2.8% 불과했던 사립유치원 참여율을 99.1%까지 늘렸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제거 현장을 특별점검하고, 지난 5월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안내서'를 배포했다.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

고, 2021년까지 설립 이후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를 통해 교육비리 제보 및 국민 제안을 받고 있으며, '19. 6월부터는 권익위와 협업하여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국민 참여를 활성화했다. 권익위에 설치된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는 사학비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교육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도 강화하였다.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감사원, 경찰청, 교육부 등에서 감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 등 전문성을 가진 시민감사관 15명을 위촉하여 종합감사, 회계감사 등에 투입하고 있으며, 감사원, 국세청,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정부합동감사단을 꾸려 감사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 스스로 혁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교육부 직원의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 등도 추진하였다. 교육신뢰회복은 교육부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교육계 전반에 신뢰가 튼튼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계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노력하고 변화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②

[표]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 주요 사안

- 1.14. 1차
 -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출범, 운영방안 협의
 - 학사부정 관련 대학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28. 2차
 - 체육계 비리 대응: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및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마련
 - 방학 중 학교 석면제거 현장 특별점검 시행
- 3.11. 4차
 -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강화: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 제작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 3.21. 5차
 -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특별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
- 5.8. 8차
 - 대국민 공모 시민감사관 도입
- 5.20. 9차
 - 미성년 논문 및 부실학회 관련 15개 대학 특별 감사
 - 교대 내 학생간 성희롱 관련 조치 경과 및 대응 방안
- 6.24. 11차
 - 2021년도까지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 대상 종합감사 실시
 - 성신여대 성비위 교수 관련 사안 조사 실시
- 7.9. 12차
 - 전북대 교수 자녀 논문 부정행위 특별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 9.26. 13차
 - 학생부종합전형 실태파악 조사 실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및 특목고·자사고 등 선발 비율 높은 13개 대학 실태 조사
- 10.17. 14차
 -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관련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 발표
 - 모든 국공립·사립유치원 입학에 '처음학교로' 사용 의무화

대학을 주체로 지역과 정부가 함께하는 혁신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지금, 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에는 올해 입학정원 대비 약 12.4만 명의 입학생 부족이 예상되어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위기 극복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미래사회 수요를 대응하는 대학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올해 8월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 이러한 환경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2022년까지 현 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대학이 혁신의 주체로 서고, 지역과 정부가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인위적인 정원감축 대신 대학이 스스로 적정규모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지역대학을 육성하며, 폐교대학의 후속 지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번 방안 핵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자율적인 교육·연구 혁신과 설립유형별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통해 제시한 7대 혁신과제는 ①미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②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혁신, ③대학과 지자체 협력기반의 지역혁신, ④대학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 ⑤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⑥대학의 자율혁신 지원을 위한 평가혁신, ⑦설립유형별 특성을 살리기 위한 대학체제 혁신이다. 이중 대학평가 혁신은 이어서 발표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과 연결된다.



교육의 질 제고 및 대학의 적정 규모화 지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교육의 질 제고와 대학의 적정 규모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

해,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학부교육 개선 및 적정 규모화 지원 관련 지표의 비중과 내용을 강화했다. 또한, 5대 권역별 선정 원칙을 유지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했다.

그동안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정원 조정을 목적으로 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추진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의 인위적 정원 감축 정책 기조를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평가·진단 방식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하고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학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1년 진단은 대학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진단결과와 인위적인 정원 감축을 연계하지 않고,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 지원 대상 대학 선정 중심으로 재정립함으로써 대학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본 방향은 대학의 자율성 존중과 지역대학 배려 강화,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이다. 정부의 인위적인 정원 감축이 아닌 진단 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을 비중을 확대하여 대학의 적정규모

대학혁신 지원 방안·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발표 규제 혁신, 자체 정원 조정 등 대학 자율성 강조 지역대학 배려 강화, 대학평가 부담 완화

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고려한 학사구조·학사제도,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개선 노력과 실적 등을 진단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질적 혁신 노력을 지원한다.

역량 갖춘 지역대학 우선 지원 등 지역 살리기 나서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시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에서 90%를 우선 선정한다. 나머지 10%는 전국 단위로 절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한다. 또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19.8.6, 발표)과 병행해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립대의 공적 역할 강화와 전문대의 평생직업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정립한다.

2021년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과 진단 결과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재정립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진단 실시 전 별도 지정해 진단 참여를 제한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대학의 기본적인 교육여건·성과, 재정 건전성 등과 관련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재지정 과정을 통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제한을 해제하여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유도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및 2021년 진단은 2021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확대·신설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전했다. ②

지자체 및 교육청 협력의 초등 돌봄서비스

올해 40만 명에 온종일 돌봄서비스... '22년 53만 명 목표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로 지역돌봄 확대
'20년 하반기부터 '정부24'서 돌봄 정보 통합 제공

맞벌이가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등 양육 환경이 변화하면서 초등학생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온종일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돌봄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했다. 올해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 규모는 당초 목표치 37만 2천 명보다 많은 40만 명으로 확대됐다. 학교돌봄교실 1,500여 실을 늘려 29만 명에게 서비스 공급을, 마을 돌봄은 다함께 돌봄 150개소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0개소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11만 4백 명 지원을 목표로 했다. 2022년까지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을 합해 53만 명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개최된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에서는 '2019년도 온종일 돌봄 지원 계획'과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온종일 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지역사회 중심 돌봄 연계 강화 △지자체 중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장이 함께 참여해 돌봄서비스 확산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추진

지난해 교육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은 올해 1년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우수한 돌봄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했다. 공모로 선정된 9개 지자체(서울 구로구·노원구·성동구·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는 돌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돌봄기관 간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 돌봄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 돌봄 기반을 구축했다.



지자체는 교육청(학교)과 협력을 통해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단위의 돌봄 공급 기관을 파악하여 돌봄서비스를 연계·안내했다. 활용가능교실, 도서관·아파트 유휴공간 등 지역 공공시설은 아이들을 위한 돌봄센터로 재탄생했다.

서울 노원구는 아파트 내 유휴공간에 '우리동네 아이휴센터' 6개소를 설치해 아이들의 놀이와 독서 지도 공간으로 활용했다. 서울 성동구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과 작은 도서관을 초등돌봄센터인 '아이꿈누리터'로 탈바꿈하고, 돌봄공동체 확산을 위해 이웃돌봄도 운영했다. 경기 시흥시는 마을학교,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으로 나뉘는 시흥형 돌봄모델을 구성했고, 충남 홍성군에서는 홍성초와 홍주초의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해 지자체 주체로 돌봄교실을 운영했다. 이처럼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돌봄 모델 운영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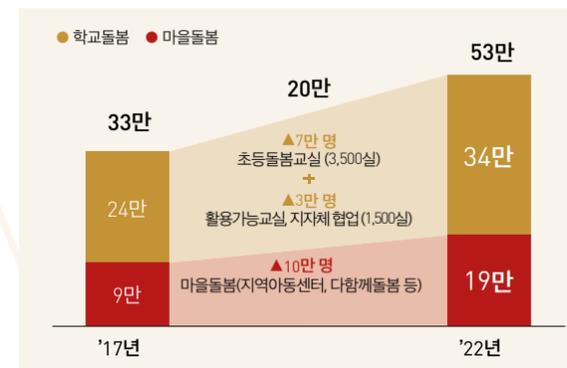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한층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기관별로 신청하던 불편함도 내년부터 개선된다. 돌봄 확대와 함께 돌봄 제공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초등학생 돌봄서비스가 한 곳으로 통합된다.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는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www.gov.kr)'와 연계해 기관·시설별 돌봄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희망 지역·시간 등 조건에 맞는 돌봄을 실시간으로 안내·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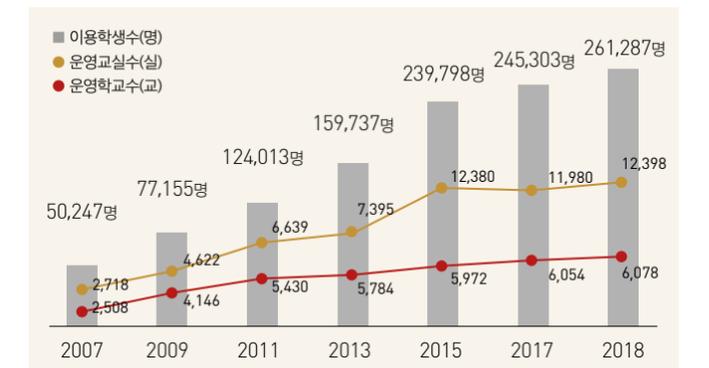
앞으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 지역 내 돌봄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돌봄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향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돌봄을 추진해 나가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㉞



[그림1] 온종일 돌봄 확대계획



[그림2] 최근 10여 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 추이



교육 분야 주요성과 유아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유아교육

- 누리과정 100% 국고 편성
:(유아당) 보육료 22만 원, 방과후 과정 7만 원
- 공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도입: 입학절차 간소화
- 국공·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00% 도입: 회계 투명성 강화

초등돌봄

- 돌봄교실 확충
:(17년) 11,980실 → ('19년) 13,910실
- 돌봄 제공 확대
:(17년) 24만5천 명 → ('19년) 29만 명

고교 무상교육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1인당 연간 약 160만 원 절약)
- | | | | | |
|-------------------|---|-----------------|---|--------------|
| 2019년 하반기
고3학년 | ▶ | 2020년
고2·3학년 | ▶ | 2021년
전학년 |
|-------------------|---|-----------------|---|--------------|
- ※ 지원 사항: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

고교학점제 고교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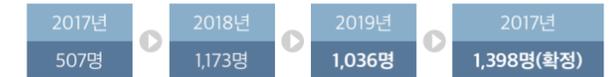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5교('18년) → 354교('19년)
-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마련('19.11.)

직업계고 직업교육

- '20학년도 마이스터고 51개교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 변화하는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학과 개편
: 98개 학과('18년) → 125개 학과('19년)

특수교육개선

-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특수교육의 질 향상
- 과밀학급 3.7%p 감소
: 15.8%('17년) → 12.1%('19년)
- 특수교사 증원



학교공간혁신

- 유연한 학습 환경 및 학습·휴식·놀이가 균형을 이루는 생활공간 구성
※ 교실단위 427개, 학교단위 87개교 사업 추진('19.11.)

대학자율성 대학공공성

- 모든 국립대학(39개교) 재정지원 확대
18개교 210억 원('17년) → 39개교 1,504개교('19년)
-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단순화('18년)
: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

국립대학	일반재정 지원		특수목적 지원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지원
국립대학 육성	대학	전문대학	산학협력 LINE+	연구지원 BK21+
	5,688억 원	2,908억 원		

평생학습 K-MOOC

- K-MOOC 확대: 324개('17년) → 650개('19년)
※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19.6.~)
- 매치업(한국형나노디그리) 운영
: ('18년) 10개 → ('19년) 20개(누적)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 '19년 30개교

대학종합감사 시민감사관

- 주요 사립대 16개교, '21년까지 종합감사 실시
- 사학기관 회계관리 대상 법인수의 단계적 확대 및 사학기관 감리주기 단축('17년, 15년 → '22년, 5년)
- 시민감사관 도입('19.7. 15명)



12 대전선화초 5~6학년 아이들이 학부모와 마을 어른들의 설명을 듣고 김장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다.
3 이날 만든 김장 300상자가 은행선화동행정복지센터 앞에 가득 쌓여 있다. 이 김장은 마을에 홀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선화초등학교 가정-학교-지역사회 협력 속에서 ‘인성이 자란다’

김장은 ‘이웃 사랑’이다

“엄마랑 할머니가 김장하는 것만 봤지, 제가 직접 김장을 해 보기는 처음이에요. 날씨가 추워서 손도 얼얼하고 허리도 아프지만, 오늘 우리가 한 김장을 동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올해 처음으로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는 남준혁(5학년) 학생은 낯선 어른들과 함께 김장을 하면서 살짝 들떠있었다. 학교 밖에서 동네 어른들과 김치를 담근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조금 특별한 행사이기 때문이다. 대전선화초등학교(교장 이민)는

2015년부터 매년 5~6학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김장 나눔’ 행사를 해오고 있다. 은행선화동행정복지센터(이하 복합센터)와는 지난해부터 인연을 맺고 김장 나눔에 부족한 일손을 보태고 있다.

이민 교장은 “인성교육의 핵심은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하면 개념적 지식, 교실 속에서 이뤄지는 교육만 생각하기 쉽지만, 교실 속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며 “체험을 통해 협력을 배우기에는 지역사회의 어른들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이 최고”라며 김장 나눔의 숨은 뜻을 소개한다.

김장에 필요한 배추와 각종 양념은 복합센터에서 준비하고

학교는 양념구입에 필요한 일부 경비와 부족한 일손을 돕는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에는 학생 80명과 학부모 1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복합센터 야외에 천막과 간이 테이블이 마련되고 그 위에 절인 배추와 양념이 쌓이면서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분주해졌다. 어린 자원봉사자도 동네 어른들 사이사이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어른들의 손놀림을 따라 열심히 김치를 버무리는 중이다.

김군희(5학년) 학생은 “김장을 해보니 엄마 마음이 조금은 이해된다.”라며 “동네 어른들이 고생한다며 입에 슬쩍슬쩍 넣어준 김장이 정말 맛있었다.”라고 말한다. 손혜경 학부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째 참여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손놀림이 무척 빨라졌다. 요즘 가정에서 김장하지 않는 집들이 많은데,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인 것 같다.”라며 “특히 김장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도 의미 있지만, 평소 서먹했던 동네 어른들과 김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없이 대화하면서 가까워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은행선화동 주민들과 선화초 5~6학생들이 만든 김장은 300상자로 동네에 홀로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사계절 인성이 함께하는 학교

대도시 구도심에 위치한 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아이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2016년부터 인성교육을 시작, ‘행복한 선화 인성 四(사)계절 思(사)움 가꾸기’ 프로젝트를 통한 인성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는 선화초만의 특색교육으로 생활 속에서 참여하는 생활동 중심 수업을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의 계절성을 바탕으로 4가지 역량(건강, 인성, 지성, 개성) 중심의 주제통합 프로젝트학습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성 덕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민 교장은 “인성을 흔히 선행과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는데, 우리 학교는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관계 맺기’와



4 올해 6년째 대전선화초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이민 교장
5 학교 전경
6 인성이 자라는 인성나무

시민성에 역점을 두고 교육한다.”라고 소개한다.

선화초의 인성교육은 크게 3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나와의 관계’다. 용기·성실·성찰·절제 같은 덕목에 학생 스스로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피도록 돕는다. 교사들이 개발한 체크리스트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도 있다. 두 번째는 ‘너와의 관계 맺기’다. 친구·가족·교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익힌다. 마지막 단계는 ‘우리의 관계 맺기’로 동아리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책임감·협동·준법정신을 배운다.

지난 11월 21일, 복합센터에서 진행된 ‘김장 나눔’은 인성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의 관계 맺기’의 일환이며, 이는 인성수업 ‘선화 효동이 프로젝트’와도 연결된다. 가정에서 효행을 실천하고 100원의 용돈을 모아 형편이 어려운 나라의 친구를 돕는 ‘100원의 기적’은 그중 하나다. 가정에서 1일 1효도하기를 실천하는 학생들은 굿네이버스를 통해 동전을 모아 해외 친구 3명을 후원하고 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100원짜리 동전을 모아 기부한 누적액이 450만 원에 이른다. 가정의 달에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나의 뿌리를 찾아보기도 한다. 5월과

7월에는 효 주간을 운영하여 외부 강사를 활용한 연수도 진행한다. 연수를 통해 효와 예를 익히고 효 문화 축제, 박람회 등에서 효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사회로 나아가 실제 효를 실천해 본다. 즉 학교에서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나 노인 공경 경로당 위문 공연 활동 등 다양한 가정·지역 연계 활동들을 구성하고 가정과 지역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효 실천 습관 형성을 돕고 있다.

협력 관계에서 싹트는 ‘희망 교육’

이민 교장은 학교경영의 중요한 가치로 ‘협력’을 꼽았다. 그는 “사회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짙어지면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진다. 때로는 교육 본질을 벗어나 방관자가 된다.”라며 “가정, 지역사회, 학교가 협력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교육의 본질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 ‘협력’의 중심에는 교육공동체가 있고 온 마을이 함께 한다. 선화초는 (주)극단 아낌없이 주는 나무, 대전다문화센터, 대전충남녹색연합, 은행선화동행정복합센터, 계룡문고

등 11개의 지역사회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주)극단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2016년부터 학생 동아리 활동에 연극 강사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소질계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 금연, 다문화화를 주제로 연극공연을 해왔으며 학교 밖의 초청 무대에도 오르고 있다.

또한 선화초는 4가지(건강, 인성, 지성, 개성) 역량에 대한 영역별 인증제를 시행해 목표 지점에 도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 마을의 작은 서점과 협력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바른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인증제 도전과 보상(도서상품권), 독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인성교육 시범·중점학교를 운영해 온 선화초는 생활 속에서 체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성교육 모델을 연구해왔고 지난 11월 19일에는 그동안의 인성교육의 성과를 인정받아 제7회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 단체 부문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인성교육의 핵심은 협력이고 가정-지역사회-학교가 함께할 때 시너지가 납니다.”



우리의 아이디어가 담긴 ‘콩콩 놀이터’

“중간놀이 시간에도 맘껏 놀 수 있도록 놀이터가 실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 미끄럼틀 타고 싶어요.”
“놀이터에 숨을 수 있는 터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놀이터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은 어떨까?
어린이들이 친구와 함께 맘껏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놀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 추진한 ‘잘 노는 우리 학교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대전선화초는 지난 9월경 기존의 낡고 노후화된 놀이터를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놀이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싶은 아이들의 욕구를 반영해 계단과

미끄럼틀을 응용한 계단형 쿠션 미끄럼틀 놀이터로 탄생했다. 공모를 통해 이름도 ‘콩콩 놀이터’로 정했다. ‘콩콩 놀이터’는 학교의 핫 플레이스로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이 놀이터에서 ‘더 잘 놀기’ 위해 아이들은 전교생이 함께하는 다모임에서 몇 가지 규칙을 정했다. 이용자가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학년별로 요일과 시간을 정해 이용할 것,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기 위해 실내화를 벗고 이용할 것,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실내화를 한쪽 공간에 정리할 것 등이다.
‘나, 너, 우리’가 함께 이용하는 놀이터에서 더 잘 놀기 위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미 교육과정에 깊게 뿌리내린 선화초의 인성교육은 이렇듯 학교생활 전반에서 선순환되고 있다.





민주시민 사회를 꿈꾸는 교육운동 실천가인 염경미 교사

염경미 안산 시곡중학교 교사 삶과 삶이 일치하는 살아 있는 교육을 향한 도전

경기도 안산시 시곡중학교 염경미 교사는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이자 민주시민 사회를 꿈꾸는 교육운동 실천가이기도 하다. 20여 년째 민주주의 교육에 목말라하며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를 새로 만들고, 페미니즘교육과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평화교육까지 아우르며 아이들에게 삶과 삶이 일치하는 살아 있는 교육을 구현해 가는 중이다.

“깨어있는 민주시민의식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부터 경험적으로 배워야 한다.”

2018년 12월 일부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이념에 대해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서도 모든 교과와 기본 목표는 ‘민주시민의 육성’으로 명시해 놓았다.

경기도 안산 시곡중학교 염경미 교사는 10여 년 전부터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를 새로 만들고, 이 교육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교육운동 실천가다. 2013년에 제작된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의 집필팀장이자 대표저자로도 참여했다. 지난해 2월, 염 교사는 이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부터 수업 적용사례, 이 교육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냈다. <선생님, 민주시민교육이 뭐예요?>다.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함께 사는 사회,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 가치, 태도, 참여의 덕목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교육입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교육이 아니라, 삶의 기본 철학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에요. 이기적인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주권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의 대표저자

염 교사는 올해로 교직 23년째를 맞았다. 1985년 대학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광주항쟁이 그가 알던 내용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그 자신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해 5월, 그는 광주에 가게 되었고, 전남대에서 있었던 5·18 전야제에도 참가했다. 그렇게 역사현장을 찾으면서 보낸 4년의 대학 생활, 그는 격동의 1980년대를 숨 가쁘고 치열하게 살아냈다. 당시 어수선하고 혼란했던 시국은 그가 졸업한 후에도 교사발령을 8년씩이나 지연시키고야 말았다.

“어렵사리 시작된 교직 부임 이후에는 그 지체됐던 시간만큼 갈증을 해소하듯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학교 수업과 생활에서 전개해 나갈 수 있었죠.”

염 교사는 이후 보편적 인권의식으로 확장되면서 2008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이의 시행과정에도 참여했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활동과 2013년에는 민주시민교육 교과서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의 필진으로도 참여할 수 있었다.

“초기의 민주시민교육은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운영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낯선 측면이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학교 구성원의 대부분이 이 교육에 동의하는 등 교육환경이 한층 더 진전됐다고 할 수 있죠. 앞으로 교육과정에서 수업내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더 많은 연수와 논의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깨어있는 시민의식

초기의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사회화 틀 안에서의 민주주의’로 한정되곤 했다. 하지만 현재는 ‘일상생활의 원리로서 작동하는 민주주의’로의 대전환이 큰 줄기를 이룬다. 특히 염 교사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중학생 대상 영역에서는 ‘대화, 공감, 이해, 연대, 협력 등 공동체 생활 속에서의 민주성’을 우선 몸에 익히도록 하자는 게 교육목표다. 곧,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삶과 삶이 일치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 자발성, 공동체에의 기여, 책임감, 존중을 배워나가게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수업시간에는 물론 학생자치 경험, 학교 문화 만들기, 지역사회 참여 등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합니다. 나아가 지방자치제도나 지역 시민사회, 학생 자신이 직면해 있는 교육문제, 청소년 인권 등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지요.”

염 교사는 깨어있는 민주시민의식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부터 경험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 11월 25일 취재 당일, 시곡중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5·6교시 신문활용수업(NIE) 특강이 진행됐다. 수업의 주제는 ‘끝나지 않은 전쟁: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국언론출판진흥원의 지원으로 염 교사와 외부 강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아픈 과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용기, 그분들이 살아온 역사에 대해 배우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NIE 수업이니만큼 신문의 다양한 보도사례,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영화와 영상 등이 활용되면서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몰입도는 더욱 배가됐다. 염 교사 역시 민주시민교육 수업시간이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련 단체 등의 사진과 영상, 또 EBS의 영상 자료 등도 유용한 교재로 활용되곤 한다.

시곡중학교 사회참여 동아리 ‘좌충우돌’의 현장 수업은 민주시민교육의 또 다른 전범(典範)이 되곤 한다. 매달 진

행되는 이 현장 수업에는 타 교과 교사, 학부모도 지원하여 참가한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현장을 다녀온 이후에는 그 여운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미디어로만 보아오던, 광주 자유공원에서 만난 당시 상무대의 고문과 군사재판 재연, 또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면서 읽던 비문 앞에서 학생들은 터져 나오는 울음을 꼭 눌러 삼키곤 했다.

“페미니즘교육과 연구도 매진해야지요”

초기 사회교과에 치중됐던 민주시민교육은 현재 비사회교과로도 그 영역이 확장되는 중이다. <선생님, 민주시민교육이 뭐예요?>에는 염 교사가 직접 만나 인터뷰한, 전국 비사회교과 교사 27명의 민주시민교육 현장 경험담이 생생하게 소개되고 있다. 또 현재 이곳 시곡중에서도 염 교사를 중심으로 사회교과 외에 타 교과목 교사들과의 연구 소모임도 활발한 편이다.

염 교사는 민주시민교육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제 궤도에 안착하려면 국가 수준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물론 「민주시민교육법」 제정도 필요하단다. 이제까지 민주시민교육의 태동과 이행은 전국에서 이 교육에 관심을 둔 열정적인 교사들의 주도로 전개돼 온 것도 사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위학교별 책임교사제’ 시행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염 교사는 제안한다. 예를 들면, 각 시·도의 수석교사를 민주시민교육 책임교사로 선발하여 학교의 모든 교과에 접목, 시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제가 바라는 한 가지는 이 영역이 진보적 성향이다, 아니다 등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활용되지 말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에 민주시민이 없다면, 한낱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지요. 이제 우리에게도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독립적인 교육환경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또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과정이나 정치 활동에 학생이나 교사들도 시민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정치에 따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123 시곡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사회시간에 신문활용수업을 받고 있다. 민주시민의식은 학교에서부터 경험적으로 배울 때 효과가 배가된다.

은 달라집니다.”

염 교사는 20년째 페미니즘교육 연구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민주주의는 여성을 혐오하고 짓밟으면서 진화할 수는 없어요. 어느 한 성이 우월하거나 열등한 게 아니라 다 함께 행복하자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해요. 민주시민교육은 그 내용이나 방법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우리 사회의 당면한 과제들을 두루 포함합니다. 저 또한 지난해부터는 민주시민교육의 한 범주인 페미니즘교육, 통일과 평화교육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기도 하고요.”

사회가 진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그 사회를 반영하는 민주 시민교육 의제도 진화한다. 인권, 다양성, 연대, 평화, 통일, 페미니즘, 평등 등으로 외연을 넓히는 것이다.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민주주의만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그날을 위하여! 염 교사는 다시 학교에서, 페미니즘 수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살아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고민도 함께하면서... ㉠

광주무등초 5학년의 PBL로 가득 찬 1년 교과서 밖에서 배우고 성장한 아이들



광주무등초 5학년 2반의 온라인 언어문화 개선 프로젝트 수업 현장

광주무등초등학교(교장 설향순) 5학년 학생들의 수업은 다른 학년과는 조금 다르다. 올해 5학년 담임을 맡은 김재원(1반), 이은총(2반), 유수연(3반) 교사가 합심해서 교과서 대신 프로젝트 중심 수업(PBL)으로 1년간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한 권의 책을 깊이 있게 읽고 책 속 내용을 중심으로 활동해보는 ‘온작품읽기’를 비롯해 온라인 언어문화 개선, 가.머.교(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실 만들기) 등 시기별로 진행된 단기 프로젝트 수업이 1년 내내 이어졌다. 무등초 5학년의 프로젝트 수업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최근 한 연예인의 자살로 인해 포털사이트 다음의 연예 뉴스 댓글이 폐지됐는데, 다들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얘기해볼까?”

이은총 교사의 말에 대부분의 학생이 찬성에 손을 든 가운데, 반대 의견에 손을 든 박지호 학생이 입을 열었다. “소수의 악성 댓글 때문에 댓글을 폐지하는 건 과하지 않나요?”

악성 댓글을 단 사람만 제재했으면 좋겠어요.”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이라는 이수연 학생도 거들었다. “댓글로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 아쉬워요.”

이에 찬성 측에서는 “악성 댓글은 개수가 적어도 큰 상처로 남는다.” “악성 댓글을 통해 가짜 소문이 퍼지게 되는 악영향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며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11월 20일, 무등초 5학년 2반 교실에서는 이은총 교사의 ‘온라인 언어문화 개선’ 프로젝트 수업의 마지막 시간이 진행됐다. 포털사이트 댓글 폐지를 주제로 토론의 장을 연 이은총 교사는 최근 쟁점이 된 사건을 교실 속으로 가져와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했다.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저마다의 목소리를 냈다.

토론하고 게임하며 아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수업

토론에 앞서 학생들의 관심을 환기한 건 빙고 게임을 활용한 수업 놀이다. “모둠별로 이번 프로젝트 수업과 관련된 핵심단어 8개를 포스트잇에 적고, 왜 그 단어를 적었는지 돌아가면서 발표해보자. 친구들이 발표한 단어와 중복되는 포스트잇을 떼고, 제일 먼저 포스트잇이 없어지는 모듬이 이기는 거야.” 이 교사의 말에 학생들은 저마다 ‘한글’, ‘세종대왕’, ‘비속어’, ‘줄임말’ 등의 단어를 적어나갔다. 놀이를 통해 수업 시간에 다룬 핵심어들을 더듬어 보고, 잊고 있던 개념들을 끄집어내는 활동이다. “저희 모듬의 핵심단어는 ‘신조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말 훼손 사례 중 신조어를 조사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아싸~ 우리도 적었다!” 모듬별로 발표한 단어에 따라 환호와 탄성이 오가며 교실의 분위기도 함께 달아올랐다.

한글날을 맞아 시작된 이 프로젝트 수업은 올바른 우리말 사용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차시 동안 학생들은 우리말 훼손 사례를 조사하고, 줄임말 사용을 주제로 1대1 짝 토론도 이뤄졌다. 또,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톡의 직원이 되었다고 상상해 모듬별로 온라인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아이디어 박람회를 열어 다른 반 학생들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5학년 담임교사들이 합심해 학년통합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기에 가능한 활동이었다. 이렇게 모인 아이디어를 각 회사에 편지로 제안하고 답장까지 받게 된 건 학생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이은총 교사



유수연 교사



김재원 교사

세 교사의 합심으로 시작된 학년통합 PBL

현장에서 2년째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다는 이은총 교사는 학기 초 같은 학년 교사들과 모여 1년 동안 진행할 프로젝트 수업을 함께 구상했다.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한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 수업에서는 교과서 단원 흐름에 따라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프로젝트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교과서는 잘 만들어진 교수·학습자료이지만, 굳이 교과서를 쓰지 않아도 교육과정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엮어 아이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죠.”

이은총 교사의 주도로 유수연, 김재원 교사도 프로젝트 수업에 동참했다. 김재원 교사는 “한 학년에서 한 반만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된다면 왜 우리 반은 안 하나냐는 불만이 생길 수

“교과서는 잘 만들어진
교수·학습자료이지만,
굳이 교과서를 쓰지 않아도
교육과정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엮어
아이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죠.”

있어서 학년 전체가 함께 진행하는 게 좋다.”라며 “물론 교사들끼리 뜻이 맞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유수연 교사는 특히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가장 좋아한다며 “수업 시간에 집중도가 낮고 장난만 치던 아이들이 직접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 보니 스스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덧붙였다.

다시 5학년 2반의 온라인 언어문화 개선 프로젝트 수업 시간.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건 ‘이야기 카드’를 활용해 이번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모둠별로 카드를 골라 카드 속 그림과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느낀 점을 연관 지어 자유롭게 얘기해보는 형식이다. 시든 꽃을 들고 울고 있는 남성, 거울을 보며 화장하는 여성, 김을 내뿜으며 금방이라도 끊어 넘칠 듯한 냄비 등 언뜻 보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그림들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수업 내용과 연결해낸다.

비 내리는 날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들이 그려진 카드를 선택한 전세은 학생은 “땀글을 달고 싶은 수많은 마음이 여기 내리고 있는 비라면, 비를 막는 우산은 바로 악플을 막아주는 기능을 의미한다.”라고 발표했다.

웃는 얼굴의 가면 뒤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남성의 카드를 고른 최준혁 학생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안된 우리의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겉으로 웃는 척하지 않고 모두가 진짜로 웃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땀글 설명제 실시, 채팅방에서 비속어 사용 시 순화된 표현으로 바뀌는 시스템, 학생들이 폭력적인 영상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유튜브 영상물 등급 제도 시행 등이 바로 학생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다.

아이들의 실제 삶과 관련된 주제 선정

이날 진행된 온라인 언어문화 개선 프로젝트 수업 이외에도 무등초 5학년 학생들의 한 해는 여러 가지 활동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들로 꽉 찼다. 각 수업 주제는 아이들의 실제 삶과 관련지을 수 있는 것들로 꾸렸다. 그중 하나로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선생님, 평생 우리 학교에 남아주세요~” 사이좋은 이은총 교사와 5학년 2반 아이들이 교실 뒤편에 구성된 쉼터에서 포즈를 취했다.

교실 만들기’라고 이름 붙인 가.머.교 프로젝트는 교실 공간혁신을 주제로 아이들이 직접 교실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실제로 교실 뒤편에 사물함을 치우고 매트를 깔아 만든 작은 쉼터 덕분에 기자는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과 둘러앉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지금 앉아있는 이 공간도 직접 우리가 구성했어요. 설계도도 만들었는데 보여드릴까요? 교실 안에 매점도 있어요!” 신이 나서 자랑하는 아이들에게서 직접 생활하는 공간을 바꿨다는 뿌듯함이 엿보였다.

‘온작품읽기’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실제 삶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은 작품 <5학년 5반 아이들>이 선택됐다. 김재원 교사는 “같은 학년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만큼 실제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고민과 상황들이 발생해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며 “책 속에 나온 내용을 직접 경험해보는 ‘셋길새기’ 활동으로 수련회 장기자랑 대비 오디션, 아이들이 직접 요리하고 함께 나눠 먹는 요리마당 등을 진행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한 학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은 높

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신아름 학생은 “이미 프로젝트 수업에 익숙해져서 내년부터 다시 교과서로만 수업한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라는 평을 남겼다.

신재희 학생은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느낌이 들고, 더 집중하게 된다. 모둠 활동이 많다 보니 친구들과끼리 의견을 교환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부족한 점은 서로 보완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무등초 5학년 교사들의 학년통합 프로젝트 수업은 이은총 교사의 전근으로 아쉽게도 내년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됐지만, 세 교사는 앞으로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아이들에게 생생한 가르침을 전달할 것을 다짐했다. 학년 초와 비교해 아이들이 성장한 게 느껴진다면 뿌듯함을 전한 이은총 교사. 그는 “연수를 듣고 책을 통해 프로젝트 수업 방법에 대해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일단 부딪치면서 부족한 점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며 “올해 시도해본 활동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하면서 수정, 보완하면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맞는 수업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②

12 모둠별로 모여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모습이 돋보인다.



대전동부소방서 미래소방관체험교실 다큐보다 진지하고, 예능보다 재미있는 안전체험



대전 호수둔여중 학생들이 지난 11월 8일 대전동부소방서 심폐소생술, 화재진압 등을 체험하는 미래소방관체험교실에 참여했다.

“안전”

소방서 앞마당을 가득 메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옛된 여중생 24명. 2시간여 동안 진행된 미래소방관체험교실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중이다. 교육 내내 가르르 웃어대던 학생들은 단단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던 지난 11월 8일, 대전 호수둔여자중학교 1학년 2반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과 함께 대전 동부소방서를 찾았다. 체험은 동부소방서 내 교육전담부서인 예방안전과 염귀희 소방관의 인솔 아래 진행됐다. 대전동부소방서에는 올해 체험과 교육을 전담하는 예방안전과가 신설되었다.

교육전담부서 신설로 수준 높은 체험

먼저, 강의실에서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부터 소방조직 및 소방공무원 채용과정에 대해 자세한 강의를 들었다. 세종대왕이 설치한 금화도감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직화되기 시작한 소방서의 역사와 구급대, 생활안전대의 도입 배경 등을 지켜보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감탄이 오갔다. 국어, 한국어, 영어가 필수과목인 필기시험 이야기에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더불어 체력시험, 신체검사도 필수라는 이야기에 당장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학생들이 다수였다. 허예영 학생은 “SNS에서 소방공무원 시험이 유명하다.”라며 “건강도 챙기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소방관

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소방공무원의 연봉체계 등 직업적인 안내가 자세하게 이어졌다.

그다음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찾았다. 이곳에는 아이들이 1대1로 다양한 응급처치법을 배울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술 연습 마네킹, 하임리히(기도폐쇄 응급처치) 연습도구를 다량 갖춰 놓았다. 이미 학교에서 생활안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응급처치법이 낯설지 않은 눈치였지만 눈으로만 본 것과 직접 하는 것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 뭔지 알죠?”

“4분의 기적이지요”

“어느 정도 세기로 눌러야 이마까지 불빛이 갈까요?”

“응급처치가 늦어서 이미 운명하셨어요.”

염귀희 소방관은 한 명씩 꼼꼼히 살피면서 잘못된 점을 알려주고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교육을 이끌어 갔다.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하면서 교육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이어 염 소방관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때는 몸에 기기를 붙인 다음 옆으로 비켜나고, 절대 전문가가 올 때까지 환자의 몸에서 떼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미 학생은 “학교에서 응급처치법을 배웠지만 실습할 기회가 많지 않다.”라며 “소방서에 와서 직접 해볼 수 있으니 더 기억에 남는다.”라고 전했다.

심폐소생술부터 화재진압까지 한 번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배운 학생들은 2개 조로 나눠 곧바로 소방방재체험에 나섰다. 담당 소방관이 구급차 실내에서 처치 기기를 시연과 함께 설명해 주니 학생들의 눈이 반짝인다. 서유정 학생은 “구급차에 타볼 기회가 없었는데, 직접 타보니 신기하다.”라며 들것 체험의 소감을 말했다. 이외에도 간이심전도 확인 및 혈관 체크기 등 다양한 의료기를 체험해보면서 구급대원의 기분을 내보았다.

학생들은 붕괴사고, 교통사고에서 반드시 필요한 동력절

단기, 스프레더, 유압식 콤팩트 등의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화재진압 시 필요한 열화상 카메라도 써보았다. 또 화재진압 소방관들의 안내에 따라 차례로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를 착용해 보았다. 윤나빈 학생은 “입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겁기까지 하다.”라며 “소방관들이 대단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화재진압복을 착용한 학생들은 살수체험도 해보았다. 안전상의 문제로 현장에서 쓰는 것보다 약한 수압의 호스로 체험하는데도 학생들은 혀를 내둘렀다. 이어서 119안전체험 이동교실로 향했다. 대형버스를 개조해 만든 이동교실은 주로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19이동교실에서는 임재철 소방관의 지휘 아래 지진 및 지하철 사고 체험 및 피난 대피 시 행동요령을 배웠다. 학생들은 실제 상황을 방불케하는 시뮬레이션에 놀라움과 동시에 재미를 함께 느끼는 모양이었다. 안전모를 쓰고 한 명씩 슬라이딩 탈출을 실행하면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비명을 발사한다. 마지막으로 소방현장 영상을 보면서 체험교실을 마무리했다.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First In, Last Out).” 학생들은 영상을 보는 동안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조용해졌다.

염소윤 학생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는데 시간이 짧아 아쉽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양원 교사는 “담당 강사님이 즐겁게 체험을 이끌어 주셔서 아이들이 유익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염귀희 소방관은 “아이들이 더 즐겁게 체험하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더 많은 아이들이 미래 직업체험교실을 찾아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①

미래소방관체험교실

- 장소 : 대전동부소방서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00)
- 문의 : 042-270-1321

글_ 유연상·김영근 명예기자

2019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 성과발표회 개최 행복한 교육 나눔 한마당이 펼쳐지다!



2019년 12월 5일, 서울 LW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 홀에서 '2019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명예기자 성과보고회에는 행복한 교육 관계자, 명예기자 등 50여 명이 참석, 한 해를 되돌아보며 행복한 교육의 나눔을 실현하기 위한 한마당이 펼쳐졌다.<사진1·2>

먼저 박대선 사무관은 격려사를 통해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해 온 명예기자들을 격려했다. 매년 우수 명예기자에게 수여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에는 김경민(서울상계초 교사), 양요생(서울상신초 교사), 유연상(대정초 교사), 오인선(신연중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김영근, 이하성, 김말선, 차현숙, 김희숙 명예기자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다양한 교육 소식을 전달하며 교

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다음으로 이순이 편집장은 행복한 교육의 발자취에 대해 명예기자들과 함께했던 2019년의 정책토크, 특별기획, 현장코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행복한 교육 관계자와 명예기자들이 협업하여 전국 방방곳곳 행복한 교육 소식을 전했다는 점이 느낄 수 있었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어서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의 글쓰기> 등 베스트셀러 작가인 강원국 강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직시절,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지내면서 대통령의 말과 글을 썼던 이야기를 비롯해



15가지의 글쓰기 비법을 알려주어 명예기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사례발표자로 나선 양지훈 명예기자는 2013년부터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로 활동해온 7년차 기자로서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재미있게 강연해 주었다. 김경민 명예기자는 5년째 명예기자로 활동하면서 의욕이 넘쳤던 첫째, 기사에 대한 소재 고갈로 고민해왔던 시간들, 그리고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로 활동하면서 관심사가 변해왔고, 취재를 통해 5년간 함께 성장해온 명예기자의 성장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사진5>

마지막으로 명예기자 대표를 맡고 있는 하현우(울산고교 교사) 명예기자<사진3>가 '2020 행복한 교육 개선안 분임토의' 말아

진행하였다. 모둠별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단어퀴즈, 인물퀴즈)을 통해 친밀감을 높였고, 이후 더 나은 행복한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토의를 하고 분임에서 정리한 내용을 분임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4> 중간보고회 개최, 행복한 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실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2020년에도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 소식을 전달해주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 나눔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된 것 같아 명예기자로서 1년 동안 참여했던 시간이 보람차고 뿌듯하게 느꼈다. 그리고 이번 한해를 되돌아보며 더 나은 2020년을 위해 한 발 더 앞장서는 계기가 된 시간이었다.

글_ 이명주 명예기자

연탄나눔으로 따뜻한 겨울 보낸다



문태고등학교(교장 김승만) 1, 2학년 재학생 38명으로 이루어진 무지개봉사단 연탄나눔팀이 지난 11월 16일 전남 목포시 서산동 일대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겨울철 난방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댁 3가구에 연탄 1000장을 배달하는 '2019 사랑의 연탄배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주변 이웃을 살피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연탄배달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고, 유달동주민센터의 협조로 효율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생각보다 날씨가 춥지 않고 화창했다. 문태고등학교 김승만 교장을 비롯하여 유달동주민센터 관계자 그리고 문태고 졸

업생까지 함께해 나눔에 추억을 더하였고, 서산동 일대 주민들의 열렬한 응원과 격려 속에 연탄나눔팀 학생들은 씩씩하게 배달에 임하여 완수하였다.

연탄을 받으신 한 어르신은 "날이 갈수록 연탄창고가 비어져 가는 걸 보고 정말 걱정이었는데, 학생들이 걱정을 덜어줘서 정말 고맙다."라며 "이번 겨울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환하게 웃으셨다.

연탄배달에 참여한 문태고등학교 2학년 전윤지 학생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연탄배달 봉사활동이었는데, 감격스러웠다."라며 "친구들과 후배들 그리고 선생님이 힘을 모아 연탄 1000장을 날랐다는 게 뿌듯하고, 우리의 작은 힘도 주변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글_ 차현숙 명예기자

연탄의 무게 3.65kg, 사랑의 온도 36.5도



대전전자통신고등학교(교장 김진두) 샤프론 프론티어 봉사단은 3년 전부터 주민센터에 의뢰해 도움이 필요한 2곳에 연탄을 300장씩 전달하고 있다.

샤프론 프론티어 봉사단은 각자 준비해온 비옷과 장갑을 착용하고 연탄 나눔에 나섰다. 한 줄로 길게 늘어선 아이들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연탄은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도 담아 각 가정에 배달되었다.

글_ 이하성 명예기자

행복 나누고 사랑 실천하는 특별한 시간



경남 사천초에서 11월 15일 학교 인근에 소재한 성남두레복지원에 봉사활동을 나섰다.

아이들은 봉사활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부족하였으나, 봉사활동 현장에 도착하니 표정부터 바뀌었다. 도착하기 전에는 그렇게 장난을 치더니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에 숙연해지는 듯하였다.

성남두레복지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안내를 받아 아이들의 봉사활동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복지원에서 봉사활동의 의미와 활동 시 주의점을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시작으로 요즘 유행하는 걸 그룹의 군무를 비롯해 플루트연주 등의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이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그리기와 만들기를 비롯해 고사리 손으로 안마를 해드렸다. 이날 함께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표정에서 즐거움이 엿보였다. 아이들과 헤어질 시간이 찾아왔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꼭 자주 자주 찾아 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아이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봉사활동 외에 개인적으로 자주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소리쳤다. 이날 복지원 관계자는 "아이들이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데, 아이들이 춤과 플루트 연주 등 다양한 장기자랑을 펼쳐주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면서 특히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복지원을 찾아주어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글_ 엄장수 명예기자

다문화 가정, 수원 화성행궁을 가다



지난 11월 8일에는 시흥시 정왕1동 주민자치회의 주최로 관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역사 문화 탐방은 수원 화성행궁에서 20여 명의 다문화 가족이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11시 화성행궁 입구인 신평루 앞에서 벌어지는 무예24기 공연관람을 시작으로 점심식사, 화성행궁 투어, 화성행궁 광장에서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다.

수원 화성행궁은 조선 22대 임금인 정조가 아버지 장헌세자(사도세자)의 묘를 경기도 양주에서 현릉원으로 옮기며 축성한 배후 도시인 화성에 지은 행궁으로 조선시대 최초의 신도시와도 같은 개념이다. 이날 방문한 화성행궁의 소개를 맡은 문화재 해설사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재밌는 워트로 안내하는 내내 진지하면서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또한, 화성행궁 투어를 마친 후 약간의 선물을 준비하여 함께 한 레크리에이션 시간은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글_ 김희숙 명예기자

전교생 그림책 출판기념회 - 앓, 눈부서! 33명의 빛나는 작가



삼기초(교장 한명희)는 11월 8일 <앓, 눈부서! 33명의 빛나는 작가> 그림책 출간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삼기초는 특색사업으로 '나도 작가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어린이 책 작가연대'와 함께한 책 짚공 활동은 작가가 보내준 책을 읽고 작가와 편지를 주고받는 등 독서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책 짚공 활동을 시작으로 학급에서는 독서활동과 글쓰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담임교사와 윤미경 그림책 작가와 함께 그림책 쓰기 수업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마음속에 담긴 이야기를 마음껏 펼쳐 놓을 수 있었다. 6학년 박건우 학생은 "16바닥의 글과 그림을 만드는 것은 힘든 작업이었지만 완성된 책을 보니 정말 뿌듯하다."라며 감격했다. 이날 학생들은 자신의 그림책 소개와 글을 쓰게 된 소감을 발표하고 어린이 작가 사인회, 서평쓰기 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5학년 김승찬 학생은 <비위 약한 도마>로 정식 작가 계약을 하게 되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출판 관계자는 상상력과 표현력에 많은 감동을 받았으며 정식 계약을 제의하였다. 그 외 32인의 어린이 작가의 책은 e-book으로 제작되어 교보문고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시는 언제나 내 편이야>라는 시집을 전교생 38명의 작가와 함께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나도 작가되기' 담당 김점선 교사는 "진정한 독서의 완성은 책 쓰기라는 말이 있다. 학생들이 나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주위와 즐겁게 소통하는 활동을 통해 나만의 그림책이라는 소중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명희 교장은 "그림책 한 권, 한 권에는 아이들만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다."라며 "앞으로 작가로 거듭난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라며 말을 전했다. 이번에 출간된 그림책은 전남 공공도서관 및 곡성 관내 도서관, 삼기초 도서관에 기증하여 일반 시민들에게도 선보일 예정이다.



글_ 김민중 명예기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대구교육대학교대구부설초등학교(교장 이점형, 이하 교대부설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융합적 사고를 갖춘 미래형 인재 양성학교로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프로젝트를 공개수업을 최근 교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교대부설초는 초등협력학습 현장지원센터로서 교과 융합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미래형 협력 학습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세시풍속 CPR', '저 높은 팔공산에 네 꿈과 끼를 펼쳐라' 등 진로, 역사, 인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난 1년간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했다.

특이 이날 공개한 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주제로 '역사의식'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윤현철 교사의 수학과 사회를 융합한 에듀테크 활용 공개수업에서는 '명량대첩'을 소주제로 학생들은 VR로 역사의 현장인 울돌목 해안과 판옥선 내부를 교실 안에서 탐험했으며 울돌목 해안의 실제 조류 속도에 대한 시간대

별 데이터, 당시의 화기의 사거리 데이터 등을 근거로 1597년의 해전 상황을 예측했다. 음악과 국어를 융합한 김수미 교사의 수업은 역사 속 장면을 즉흥극으로 표현하며 즉흥극에 어울리는 효과음과 배경음악을 스마트기기와 다양한 악기를 활용해서 제작했다. 사회와 체육을 융합한 이상조 교사의 수업에서는 학생 스스로 크롬북을 활용해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하며 체력향상과 연계된 국난극복상황을 체험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이번 공개수업은 미래형 협력학습을 위해 무선AP, 화상수업시스템, 1인 1디바이스(크롬북, 태블릿PC) 및 그룹형 디바이스, 전자칠판 등 국내 최고 수준으로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로 미래형 교육환경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점형 교장은 "미래형 인재 양성학교로서의 사명으로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해 스마트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앞으로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미래교육의 밑거름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2019 행복한교육 인생샷을 찾아라

2019년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에게 남은 가장 의미있는 사진은 무엇이었나요?
<행복한교육>이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아
독자 여러분이 직접 찍은 2019년 '인생샷'을 받았습니다.
'행복한 교육'을 주제로 하는
따뜻한 사진과 사연들을 소개합니다.

김기태

사창초 교사

"모두 다 꽃이야" 길이 재기-양감 느끼기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몸을 이용해 길이를 재어보고 꽃처럼 환하게 웃어보는 즐거운 수업시간이었습니다.



김재윤

신대초 교사

사진은 할로윈데이 기념 학급 나눔 캠페인 후에 찍은 4-3반 단체 사진입니다. 아이들과 사탕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여 우리 학교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분들께 사탕을 드리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소중한 순간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경민

상계초 교사

2019년 5월 13일~15일, 서울상계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2박 3일 수련 활동을 갔었습니다. 수련 활동 프로그램 중 하나인 친구와 협력하여 도미노 만들기 활동 중 5-1반 학생들이 만든 도미노 작품입니다.



양묘생

서울상신초 교사

스위스 어린이처럼 모자, 나비넥타이, 앞치마를 만들어 입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앞치마의 동물들이 옹기중기 귀엽지요~



강병희

발곡고 교사

발곡고등학교 사회참여동아리 '다원'은 모두 다 원하는, 모두가 다 사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공간의 민주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 중 하나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방치된 사회교과실 교실 이용 수칙을 만들고, 교실 공간을 아름답게 꾸민 활동입니다. 밝아진 교실에서 한층 더 수업에 몰두할 수 있는 친구들의 모습, 교실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들로 인해 행복했다는 '다원' 친구들의 활동 사진을 보냅니다.



양지훈

안산공업고 교사

안산공업고등학교에서 올해 디자인과 1학년 1반 담임을 맡았습니다. 통합사회 시간에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배우고, 우리 반의 평화를 지키고 추억을 쌓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1학년을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덕인

안산광덕초 교사

11월 27일 교내 다문화부스 체험에서 베트남 전통의상 체험을 하고 있는 저희 반 아이들입니다. 세계시민의식을 기르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현우

울진고 교사

어린이집 봉사활동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루일과를 마치고 하원하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 주는 선생님의 품이 아름다워 찍어보았습니다.



배선미

응봉초 교사

1, 2, 3학년이 함께 하는 협동체육수업에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어느 팀이 종이컵을 높이 쌓는지 겨루며 협동력과 집중력을 기르도록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높이 쌓다 보면 종이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 다시 시작하면서 관찰하며 서로 북돋아 주는 모습에 마음이 몽클해지더라고요.



조원표

소안초 교사

금붕어들이 뛰놀고 물방개와 우렁이들이 여기저기서 움직일 때마다 아이들은 탄성을 지른다. "선생님, 저기 보세요." 아이들이 가리키는 쪽을 보니 제법 큰 물고기 여러 마리가 쥘쥘 움직이고 있다. 자그마한 금붕어 새끼만 보다가 신기한 녀석들을 처음 보니 깜짝 놀랄 만도 하다. 물풀 밑을 잘 관찰해보면 다양한 종류의 작은 생물들도 살고 있다.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 왜 연못인지 알 것도 같다.



교육시설,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게

앞으로는 미래사회 변화, 정책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해체되는 순간까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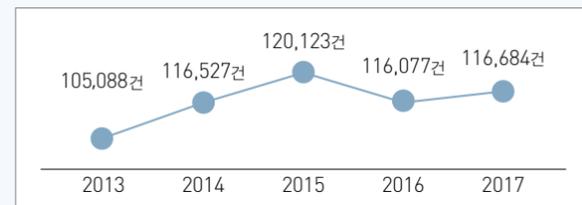
「교육시설법」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전체 교육시설(68,930동) 중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34.4%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시설의 70% 이상이 내진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석면,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건축자재의 사용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육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타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교육시설이 관리됨에 따라, 교육시설의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의 정립과 안전성 확보 및 중·장기 관리 강화, 교육시설의 조성 강화 등 교육시설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법」이 제정·공포(19.12.3)되었다.

[그림] 학교 안전사고 현황



교육시설의 종합적·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확립

교육시설이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계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법정기관이 설립·운

영되고, 전문기관이 지정된다. 즉, 국가 차원에서 ‘한국교육 시설안전원’을 설립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하고, 민간차원의 창의력, 정보력 등을 활용하여 법정기관의 업무를 보완·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안전, 현황관리 등에 대해 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전산시스템의 운영, 불필요한 데이터의 축적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의 구축, AI 시스템의 활용 등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적기 보수 시점을 예측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공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교육시설에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교육시설의 체계적·효율적인 중·장기 관리 강화

그동안 교육시설은 사회적·정치적 이슈, 각종 현안 등에 따라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대응·관리되고 있었다. 앞으로 교육시설은 교육부장관, 감독기관의 장, 학교시설의 장이 각각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게 관리하게 된다.

또한, 설계·유지관리, 내진설계·보강, 화재안전, 환경·재료 안전 등 건축 구조뿐만 아니라, 학생 생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구조적인 기준, 교육시설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평가·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시설을 보다 내실 있고 안전하게 관리된다.

아울러,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다른 기금의 전입금, 기부금, 수익금 등을 적립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육 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교육시설이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습권 보장

「시설물 안전법」, 「학생안전사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기존의 타법에 의해 관리되었던 안전점검·관리체계를 명확히 구분·관리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즉, 종합적으로 안전점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모든 교육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고 학습권이 보장된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교육시설에 대한 시설안전, 공간환경 안전, 외부환경 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전문 인증기관을 통해 검증받는 제도로, 제도가 정착되면 교육시설만의 특화된 제도로 자리매김하여 교육시설하면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건축’으로 인식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법 시행의 당사자인 감독기관, 교육시설 등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교육시설 조성 등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법률의 세부조항별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전문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지원하게 된다.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강화

그동안 우리의 시설정책은 지어진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관리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래사회 변화, 정책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해체되는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교공간혁신,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등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시설 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의 최소 환경기준 등을 마련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교육부는 법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기준, 지침 등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것이며, 안전 교육·홍보, 우수사례 발굴·포상, 안전 관련 연구·개발 등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법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준수해야 할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들도 교육시설 관계자들이 법률의 세부내용을 준수하고 체득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시설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백년지대계’를 책임지는 우리의 과제이자 의무인 것이다. ⑤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장애학생 꿈 펼치는 길 열린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11월 21일 인천 미추홀학교 현장간담회에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의무 배치 졸업 후 현장실습·취업·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 장애학생 일자리 참여 규모 확대

앞으로 모든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고, 장애학생의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기반한 진로·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고, 졸업 이후 학부모가 자녀의 취업을 위해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가 지난 11월 21일 장애학생의 사회 참여와 꿈 실현을 위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3개년(20~22)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초·중·고 단계별 진로교육을 연계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진로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초등학교에서 진로교육 집중학년제가 이뤄지고(진로인식)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진로탐색), 고등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및 특화교육과정 운영(진로설계)의 과정이다. 학생의 장애유형과 특성, 지역사회의 환경 등을 고려한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직업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장애로 인한 체험활동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학생의 진로설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진로진학상담 전문자격을

갖춘 진로전담교사를 모든 특수학교에 1명 이상 배치한다. 또한,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을 전담하는 교사, 일반직, 공무원 등의 전문 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범부처 통합 장애학생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기존에 부처별로 나뉘어있던 장애학생 취업 지원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돼 현장실습과 취업지원,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교육부의 나이스(NEIS) 시스템과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고용업무 시스템을 연계해 '범부처 장애학생 취업지원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찾아준다. 장애학생이 일자리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졸업과 취업 이후 관리까지 도맡는다.

발달장애학생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등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장애학생의 진학률과 취업률을 포함한 사회참여비율은 지난해 기준 56.3%를 기록했다. 인턴십 참여 학생은 2,419명으로 고3 및 전공과 재학생 중 18%에 불과하다. 이에 관계부처 연계 인턴십 일자리 참여 학생을 2022년까지 11,200명으로 늘리고,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참여 학생도 2022년 800명으로 확대해 사회참여 비율을 80%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참여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직무지도원 배치와 훈련수당 지급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설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추진하고, 부모지원 온라인 종합시스템 '온맘(<http://www.nise.go.kr/onmam>)'과 장애학생 진로·취업·진학 관련 소식지 '진로레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미추홀학교 방문해 현장 목소리 청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 발표와 관련해 지난 11월 21일 인천 미추홀학교(교장 민병란)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황을 참관했다.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미추홀학교는 진로·직업교육 중점학교로 학교기업을 활용한 현장실습과 교내 급식실, 도서관, 카페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그중 교내 카페 '그리고'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곳으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전공과 학생들이 인턴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학생들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협력해서 일자리 찾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하루 4시간 동안 일하면서 월급으로 90만 원을 받고 출석 인정도 받는다. 다만, 졸업 후에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질 좋은 장애인 일자리 찾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것이 힘들고, 그마저도 대부분 기간제 계약직으로 뽑기 때문에 길어야 1-2년 일하는 것에 그쳐 평생직장은 꿈도 꾸기 어렵다는 것.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는 김동균 학생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전했다.

유 부총리는 “장애학생들이 스스로 일하면서 성인이 되는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졸업 후 지역사회 내에서 취업할 경로가 막막하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며 “이번에 발표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협력해서 일자리 찾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함께 참석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현재 인천 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은 6,300여 명으로 올해에만 550명이 늘어났다.”라며 “매년 증가하는 장애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인천 시내 10개 특수학교에 전부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전공과도 3개 반을 추가로 증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학교의 진로직업교육 현황을 참관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 부총리 “12월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장애학생들의 진로교육이 근로 작업 위주에서 보다 보편적인 교육으로 인식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인천청인학교 이순미 교장은 “진로·직업교육을 근로나 노동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체육, 음악 등 예술 활동으로 변화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미추홀학교는 내년부터 연극, 합창, 악기연주 등 예술특화교육을 실시해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부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졸업 후에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연계된 직업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역사회 내에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천장애인부모회 김선희 회장은 “장애학생들은 집에서 멀리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동네마다 걸어가갈 수 있는 거리에 평생교육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미추홀학교 운영위원장이자 학부모 김인선 씨는 “장애인통합지원센터가 생겨 근거리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에 발표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이어 12월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정책이 발표될 예정인데,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②

[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추진 과제

장애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장애맞춤 직업탐색 프로그램 확대 · 학생 맞춤형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직업교육 중점학교 확대, 초·중·고 학교(급) 간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현장실습 활성화 및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특성화 지원 · 맞춤형·공공영역·관계부처 연계 인턴십 일자리 참여 확대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연계 시스템 구축 · 중등과정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관계부처 합동 현장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 학부모 정보 제공 확대: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 진로레터, ‘온맘’(부모지원 온라인 종합시스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대입전형 간 비율 조정 및 대입전형 단순화 사배자 기회확대·지역균형발전 위한 사회통합전형

교육부는 11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등을 통해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교육부, 2019.11.5.)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그림1 참조>.

우선,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기반의 내실화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 즉 학생부의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 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의 비교과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며, 소논문과 진로희망분야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한다<표1 참조>.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기 발표, '18.8.)한다.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 강화]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를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종 실태 조사의 후속조치로서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학교와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통 고교 정보는 학종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지원자의 고등학교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집하는 자료로, 고교에 대한 기본정보와 교육과정 등이 담겨 있다.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는 고교정보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됨에 따라 이를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부 기재금지 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과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20.3.-) 등으로 교육청 단위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그림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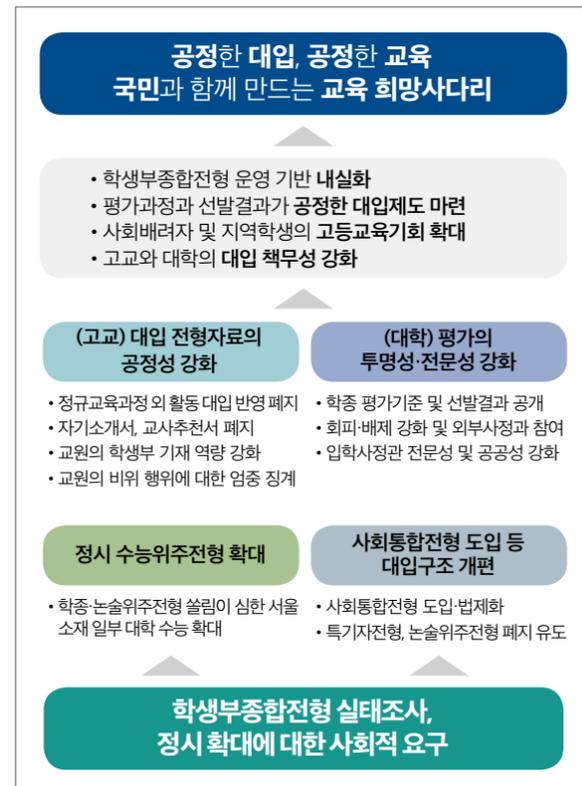
대학의 경우,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강화한다.

대학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를 폐지할 계획이다.

[그림1]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표1] 학생부 주요항목 내 비교과 영역(요소)개선 현황

구분	2020~21학년도 (현 고3~고2)	2022~23학년도 (현 고1~중3)	2024학년도 (현 중2)	
①교과활동	• 과목당 500자	• 과목당 500자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과목당 500자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②종합의견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자율활동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③비교과영역	동아리 활동	• 연간 500자 • 정규·자율동아리, 청소년단체활동, 스포츠클럽활동 기재 • 소논문 기재 가능	• 연간 500자 •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30자)만 기재 •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 연간 500자 •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활동	• 연간 500자 • 실적 및 특기사항	• 특기사항 미기재 •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 기재	• 특기사항 미기재 •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 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
	진로활동	• 연간 700자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 모든 교내수상	•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3년간 6건) 대입 반영	•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 도서명과 저자	• 도서명과 저자	• 대입 미반영	

※ (미기재) 학생부에서 삭제, (미반영)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자료로 미전송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또 현재 면접에서 이루어지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서류평가까지 확대한다.

사전에 학생, 학부모가 평가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하여, 대입정보포털·모집요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아울러,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와 보존,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등을 유도하여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하도록 한다.

[전형운영의 전문성 강화]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을 상향하는 등 대학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재 신입 입학사정관의 경우 30시간, 경력의 경우 15시간을 교육을 받았으나, 향후 신입·경력 모두 40시간으로 교육이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모든 세부평가단계에서 복수위원 평가 의무화, 1인당 평가시간 확보, 서류평가 시 전입사정관 1인 이상 참여 등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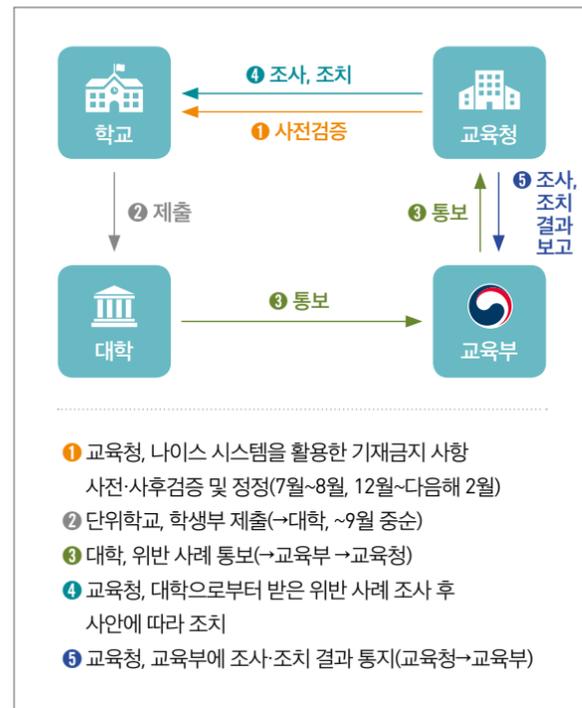
대입전형의 구조개편

대입전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종과 논술위주 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대상 대학 :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 등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그림2] 학생부 검증 시스템 운영 절차(안)



- ① 교육청,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기재금지 사항 사전·사후검증 및 정정(7월~8월, 12월~다음해 2월)
- ② 단위학교, 학생부 제출(→대학, ~9월 중순)
- ③ 대학, 위반 사례 통보(→교육부 →교육청)
- ④ 교육청, 대학으로부터 받은 위반 사례 조사 후 사안에 따라 조치
- ⑤ 교육청, 교육부에 조사·조치 결과 통지(교육청→교육부)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할 예정이다. 사회통합전형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

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 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국민들께 신뢰받는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학생부종합 전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교·대학 등 학교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

[표2] 대입 공정성 방안 추진 로드맵

	2021학년도 (현 고2)	2022학년도 (현 고1)	2023학년도 (현 중3)	2024학년도 (현 중2)
학생부 비교과영역 축소	· 기재 금지 사항 검증 강화	·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소논문 기재 금지, 수상경력 대입 제공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등)		·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 대입 반영 폐지
고교 교원 책무성 강화	·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 (20.3월~) ·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 기재표준안 보급 (20.3월~)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	· 자기소개서 개선 (문항 및 글자 수 축소)		· 자기소개서 폐지
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	·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면접→서류+면접) · 고교 프로필 전면 폐지 · 평가기준 공개 양식 개발 및 대입정보공개 강화 ·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 · 전형유형별 고교유형 및 지역별 선발결과,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 · 구간별 수혜율 등 정보공시 확대 ·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학종 운영의 전문성 강화	· 입학사정관 수 등 정보공시,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 · 입학사정관 교육시간 강화 : 신입, 경력 모두 40시간			
정시 수능위주 전형 확대		·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22학년도 조기달성 유도)		·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사회통합전형 도입 의무화	· 사회통합전형 법적 근거 마련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확대	· 재정지원과 연계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및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		
특기자전형 및 논술위주전형 폐지	·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폐지 유도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초등학생 희망직업, 의사보다 크리에이터

희망직업, 초등학생 1위 운동선수, 중·고생 1위 교사
중학생, 진로 관련 부모와 '거의 매일 대화' 비율 가장 높아
학교 진로 활동별 참여비율 '15년 대비 증가 추세

초등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으로 크리에이터가 의사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12월 10일 '2019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2007년부터 매년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해온 것으로 올해 초·중·고 학생 24,783명, 학부모 16,495명, 교원 2,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9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1~3위의 희망직업은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1위가 운동선수, 2위가 교사로 지난해와 변함없었다. 다만 3위에 의사 대신 크리에이터가 자리 잡았다. 중학생 희망직업 1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사로 나타났다. 2위는 의사, 3위는 경찰관으로 작년과 2·3위 간 순위가 뒤바뀌었다. 고등학생 희망직업 1위는 교사, 2위 경찰관, 3위 간호사를 기록했다<표 참조>. 전 영역에서 교사가 희망직업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10년 전에 비해 교사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학생 희망직업 상위 10위까지의 누계 비율 역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희망직업이 다양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초등학생은 크리에이터,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중학생은 심리상담사/치료사,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고등학생은 화학공학자, 연주자/작곡가, 마케팅·홍보 관련 전문가가 20위권에 새롭게 등장했다. 희망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중학생은 36.1%, 고등학생은 41.2%가 희망직업 관련 체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진로 활동 중 진로체험·창업체험 만족도↑

흥미와 적성, 희망직업 등 진로에 관한 대화를 부모와 가장 많이 하는 학생은 중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흥미와 적성, 희망직업'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는 초등학생은 주 2~3회(23.8%), 중학생은 거의 매일(27.7%), 고등학생은 주 1회(24.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자유학년·학기제와 연계하여 중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대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학교 진로 활동별 참여비율은 2015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초등학생은 진로체험이나 수업 중 진로탐색 활동 비중이 증가 추세고, 중·고등학생은 진로체험과 진로동아리와 같이 직접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증가했다. 진로 활동별 만족도는 초등학생의 경우 진로체험(4.27점), 창업체험(4.25점) 순이었고, 중학생은 창업체험(4.04점), 진로체험(4.03점), 고등학생은 창업체험(4.01점), 진로동아리(3.98점)로 나타났다<그림 참조>.

초·중·고등학생 모두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진로활동을 진로체험으로 꼽았다. 향후 다양한 체험처 발굴 및 질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 “진로 수업, 진로·진학 상담 필요”

초·중학생 학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진로교육으로 적성과 흥미, 꿈을 찾는 진로 수업을, 고등학생 학부모

는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을 꼽았다. 진로전담교사와 학교 관리자는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전문적인 진로교육 인력 확보 및 역량 제고와 예산·환경지원을 꼽았다.

교육부 구연희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진로교육 현장의 목소리인 이번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하도록 학생들의 창의적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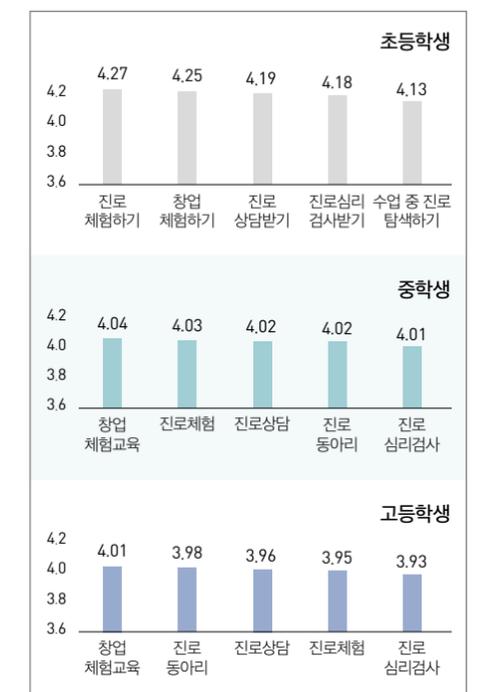
한편, '2019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물은 모든 국민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중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진로정보망 '커리어넷(www.career.go.kr)'에 탑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통계표 작성 등에 사용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하여 관심 있는 국민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②

[표] 학생의 희망직업 상위 15위 현황

(단위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직업명	비율	직업명	비율	직업명	비율
1	운동선수	11.6	교사	10.9	교사	7.4
2	교사	6.9	의사	4.9	경찰관	3.8
3	크리에이터	5.7	경찰관	4.9	간호사	3.7
4	의사	5.6	운동선수	4.3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3.6
5	조리사(요리사)	4.1	뷰티디자이너	3.2	군인	2.9
6	프로게이머	4.0	조리사(요리사)	2.9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2.6
7	경찰관	3.7	군인	2.6	건축가/건축디자이너	2.3
8	법률전문가	3.5	공무원	2.5	항공기승무원	2.1
9	가수	3.2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2.5	공무원	2.0
10	뷰티디자이너	2.9	간호사	2.2	경영자/CEO	1.9
11	만화가(웹툰작가)	2.5	경영자/CEO	1.9	의사	1.9
12	제과·제빵사	2.4	항공기승무원	1.8	뷰티디자이너	1.8
13	과학자	1.8	건축가/건축디자이너	1.8	기계·자동차공학자 및 연구원	1.7
14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1.7	법률전문가	1.8	의료·보건 관련직	1.7
15	수의사	1.6	가수	1.8	화학·화학공학자 및 연구원	1.6

[그림] 학교 진로 활동별 만족도



교육을 혁신하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INNOVATION ACADEMY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란?

- 학비, 교재, 교수가 없는 2년 비학위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 지원자격: 전공·국적·성별 관계 없이 누구나(미성년자 제외)
- 선발절차: 온라인 테스트(수리력·논리력 검증)
4주간 집중교육(개인 또는 팀 프로젝트)
- 위치: 서울 개포디지털혁신파크(강남구 개포동)
- 문의: qna@innovationacademy.kr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기술혁신이 야기하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관용어처럼 되어버렸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과 다른 산업이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하여 ‘스마트 공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기기도 하고,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하여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초래되고, 진화하고 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야기하는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은 바로 소프트웨어다. 하드웨어와 반대되는 개념인 소프트웨어는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뇌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를 동작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제어한다. 기술혁신의 매개로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2018년 글로벌 시가 총액 10대 기업 중 7개가 소프트웨어 기업인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가 제조 기업으로 잘 알고 있는 미국의 GE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날 것임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혁신적·창의적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목표

프랑스 ‘에콜42’ 벤치마킹...자기 주도 학습, 협업 등 교육 혁신

정부 지원 5년간 1,806억, 서울시 부지 제공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해당 분야의 역량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며, 소프트웨어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아니 소프트웨어에서는 오히려 사람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창의성’과 ‘유연함’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8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프트웨어 현장에서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으로, 특히 이론뿐만이 아닌 실전역량을 갖춘 소프트웨어 인재를 원하고 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인재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비·교재·교수 없는 3無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프랑스에는 ‘에콜42’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이 있다. 프랑스 프리텔레콤사의 회장인 자비에 니엘(Xavier Niel)은 사재를 출연하여 에콜42를 설립하였는데, 이 기관은 3無, 즉 3가지가 없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3가지는 학비, 교재, 교수를 의미하는데, 기존의 전형적인 교육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3無를 특징으로 하는 에콜42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도 프랑스의 에콜42를 벤치마킹하여 탄생하였다. 우리 정부도 우수하고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인재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인지하고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는데, 에콜42 학습 시스템의 장점을 확인하고 이를 벤치마킹한 교육기관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역시 에콜42와 같이 3無를 특징으로 한다. 먼저 학비가 없다. 교육을 원하는 학생은 입학 테스트를 통과하면 무료로 학습할 수 있다. 두 번째, 교재가 없다. 특별한 커리큘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전 역량을 키우게 된다. 마지막으로 교수가 없다. 기존의 학교처럼 강의식 교육은 이루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동료와 함께 협업하여 성장하며,
이론과 실천역량을 함께 키우는 방식”

어지지 않는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을 컨설팅해주고 학습 방향 등을 상담해주는 멘토는 존재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2년,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된다. 2년 동안 일정 단계의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이 발급될 계획이며, 과정 중간에 그만두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는 자기 주도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협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동료 간 평가(peer review)도 이루어진다.

정부 주도로 설립해 5년간 1,806억 투입

정부는 2018년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5년간 1,806억 원을 투입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2019년에는 3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올해 2월에는 과기정통부와 서울시가 업무협약을 맺어 서울시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부지를 제공(現 개포디지털혁신파크(강남구 개포동 소재))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기존의 인재양성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임을 감안하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추진단’을 구성(‘19.3~6.)하고,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향후 3년간 이끌어갈 학장을 선정(‘19.6. 이민석 국민대학교 교수)하고, 정부가 지원하되 민간의 자율적인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향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재단’을 설립(‘19.8.)하였다. 그리고 초기에는 에플42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에플42와 교육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19.10.).

1 과기정통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19.2.)
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입지(現 개포디지털혁신파크)



34 에플42 교육장

전공·국적·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는 연간 500여 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인데, '19년에는 250여 명을 선발(1기)하고, 내년 상·하반기에 각각 250여 명씩(2·3기)을 선발할 계획이다. 현재 '19년 1기생 선발에 만 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점은 처음부터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사람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소프트웨어 스킬이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문과를 전공한 학생이라도 소프트웨어 학습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

다면 선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원자격도 최대한 열어두었다. 전공·국적·성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다만 법적 행위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미성년자와 본업인 학업에 소홀할 우려가 있는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은 지원을 제한한다. 선발 절차는 크게 2단계인데 먼저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 수리력·논리력 등을 검증받게 된다. 이 과정은 소프트웨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음으로 4주간의 집중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 또는 팀 단위의 프로젝트(문제)를 풀게 되며, 이때는 최소한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요구된다. 4주간의 집중교육은 에플42에서도 시행하는 절차로 프랑스로 ‘라 피신(La Piscine)’이라고 하는데, ‘라 피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수영장’을 의미한다. 즉, 물속에 던져져서 스스로 헤엄쳐서 살아남으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러한 ‘라 피신’에는 능동적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교육 공간 리모델링을 마무리한 후 12월 20일 개소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직접적인 목표는 혁신적이고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의 양성이다. 이와 함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동료와 함께 협업하여 성장하며, 이론과 실천역량을 함께 키우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학습방식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보여주고 싶으며, 또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을 ‘혁신’하는 새로운 도전, 이것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성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나아갈 길에 대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②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③ 대전광역시교육청 관계기관 협업시스템 구축,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

‘낮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함’ 혁신의 사전적인 의미이다. 낮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본지에서는 교육기관의 혁신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공유·확산하고자 교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노력을 일구고 있는 현장의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실>



급식 검수 모습

불량 식재료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라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의 식자재 공급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식재료 납품업체의 입찰담합이나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질 낮은 식재료 공급으로 이어져 식중독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서는 식재료 유통업체를 조사·단속을 강화하여 부정 납품사례를 차단해야 하지만,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처분권한이 부재해 실질적인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위생 관련 협업시스템 구축, 불량업체 퇴출

이에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민간점검단(시민감사원)과 식약처, 시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식품위생 관련 관계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량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 및 시스템 개선 등 철저한 예방관리를 통해 불량업체 퇴출에 나섰다.

지난 6월 27일 대전시교육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학교급식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시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과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및 안전성 등의 관리를 위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관계기관과 원산지 합동점검 △식자재에 대한 원산지 합동검수 및 학교관계자 교육 △학교급식 납품 생산농가의 안전성 교육 및 시료채취 △농약잔류분석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여부 확인 등을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의 유기적 협업 단속을 통해 2019년 상반기 3개월간 부정·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표시광고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학교급식을 납품하기 위한 원료육을 구입하면서 거래명세서 및 원료수불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허위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학교급식전자입찰시스템 통해 부적격 업체 제한

또한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와의 협업을 통해 급식재료 부정입찰 의심업체를 적발하고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재료 조달 전용 지정정보처리장치인 ‘학교급식전자입찰시스템(eaT)’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계약당사자인 피해 학교들을 대표해 검찰청에 학교급식 불법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납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체와의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일례로, 그동안 공고문에 ‘납품시간’에 대한 해석차이로 납품시간 지연 등 분쟁소지가 많았으나 학교급식전자입찰시스템의 공고 등록 화면에 납품시간을 구간(시작시간~종료시간)으로 입력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학교와 업체 간의 분쟁을 완화하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한다

이처럼 대전시교육청·식품위생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량 식재료 납품업체 단속을 통해 업체퇴출(280개→230개로 감소)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사전에 비리를 근절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그 밖에도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및 조달시스템 개선으로 학교와 업체 간 분쟁을 완화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②

[표]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단속 유관기관 협업시스템 개선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단속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 자체점검단 단독 활동 ⇒ 적발 권한 없어 단속 한계 봉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시 치안협의회*에 합동점검 요청(19.2월) *교육청-대전시-경찰청으로 구성된 협의체 대전시 특별(민생)사법경찰과 공조 수사(19.4월~11월) ⇒ 부정 급식재료 납품업체(12곳) 적발 수사 결과 검찰 송치
처벌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기관(경찰, 검찰, 법원) 급식 불량업체 적발 후 벌금형 등 처벌 후 종료 계약당사자인 학교가 지자체에 요청해야만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하나 실질적인 제재 사례 없음 ⇒ 불량 급식업체 납품 제재 방안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경·검찰) 부정의심업체 수사 의뢰 및 요청(19.3월) (경·검찰→교육청) 범죄사실 통보(19.4월) ⇒ 부정당 업체(3곳) 제재 시행(19.9월) 급식재료 부정입찰 의심업체 aT와의 합동점검 및 적발 ⇒ eaT입찰참가자격(12곳) 제한(19.8월)
예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 점검 및 축산물 품질 공정 관리 실시 결과 등 학교와 미연계 ⇒ 예방 실효성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기관 합동점검 및 업무협약, eaT시스템 개선 ⇒ 종합적 식재료 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④ 광주광역시교육청 ‘튼튼e카드’로 장애학생 치료지원 서비스 간편하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장애학생 치료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자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지원비 지급 절차·방법 간소화 및 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 향상으로 학부모, 교사,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애학생 치료지원 서비스를 개선하라

전자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학부모들은 매월 학교에 보내야 했던 서류 제출의 불편과 치료지원 제공기관의 눈치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고, 교사들은 에듀파일, 공문 작성, 통계 자료제출 등에서도 자유롭게 되어 교육을 위한 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기관도 월말이나 분기별 지급되던 치료지원비가 서비스 제공 후 다음날 입금되는 시스템 변화로 인해 치료지원 기관 운영 및 전문 인력의 직업 안정성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치료지원 전자카드(튼튼e카드) 결제시스템 추진 배경은 첫째,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되던 치료교육이 외부 기관 치료지원 서비스로 전면 개편되는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 둘째, 매월 4가지 이상의 서류제출, 공문서 과다 생산 등 보호자, 학교, 치료기관의 복잡한 행정절차 해소, 셋째, 치료지원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을 통한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질 관리 강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전자카드(튼튼e카드) 결제시스템 추진 과정은 먼저 보호자, 학교, 치료지원기관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17.3.) → NH 농협과 업무협약(17.5.) 체결 → 치료지원 기관 인증제 도입(17.7.) → 치료기관, 학교시스템 운영 연수 및 홍보 실시(17.8.) → ‘튼튼e카드’ 전자카드 결제시스템 사업을 시행(17.9.) 하게 되었다.

장애학생 치료지원비 지급 절차·방법 간소화

전자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많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먼저 절차의 간소화이다.

시행 전
① 교육청 → 학교(예산 배부) ② 보호자 → 서비스이용 ③ 치료기관 → 보호자(청구) ④ 보호자 → 학교(지원비 신청) ⑤ 학교 → 치료기관(비용 지급) ⑥ 학교 → 교육청(잔액 반납)
시행 후
① 교육청 → 은행(예산이체) ② 보호자 → 서비스이용(카드) ③ 은행 → 치료기관(지급)

둘째로 공문 감축이다. 공문서 연간 3,700여 건 감소, 제출서류 연간 79,200여 건이 감소했다. 셋째로 질 관리 강화다. 치료기관신청 → 접수·심의 → 지정 → 모니터링 → 환류·개선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 확산 및 안정적 정착에 있다. 치료지원 전자카드 도입에 대해 경북·충남·전북·세종·제주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하여 운영 및 추진 중이다. ‘튼튼e카드’ 사용률을 살펴보면 72%(17년) → 99%(18년) → 100%(19년/ 2,401명) 사용하고, ‘튼튼e카드’ 가맹점도 134기관(17년) → 146기관(18년) → 157기관(19년)으로 확대되어 도입된지 2년 6개월만에 안전적 정착을 이루었다.

사업 만족도 결과는 [학부모] 튼튼e카드 만족도 97%, 치료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만족도 98%, [치료지원기관] 튼튼e카드 만족도 96%, 전문인력의 직업안정성 기여 84%로 ‘튼튼e카드’ 사업 시행에 따른 장애학생 치료지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참여기관 유도, 안정적 확산에 노력 기울여

물론 처음부터 추진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치료지원 기관의 경우 기존 현금 지원에서 전자카드 결제로 변경되면서 카드 수수료 발생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지원책을 요구하였다. 영세 기관은 카드단말기 구입에 따른 추가 지출이 발생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전자카드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기관도 많았다.

이러한 기관들의 요구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는 농협 측과 시간을 갖고 기관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2% → 1%로 인하하였으며, 카드 단말기 대여 서비스 지원을 통해 영세기관을 지원하였다. 또한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기관을 위해 초기에는 현금+전자결제시스템을 병행하여 최대한 치료지원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전자카드(튼튼e카드) 결제시스템은 그 결과에서도 보듯이 안정적 정착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정착되고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면서 도입을 추진했던 담당자로서 무척 놀랍고 보람을 느낀다. 모든 게 100%로 만족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귀를 열고 열심히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을 추진할 당시에는 지금의 감정이 아닌 처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한 마음이 많았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따 쪼개 고생은 했는디 겁나게 존일 했구마이~”

[그림1] 튼튼e카드 사용률 및 가맹점



[그림2] 튼튼e카드 서비스를 알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화면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교육 분야 정부혁신의 핵심사례를 체험하다



제로 박람회에 참여했다. △온종일 돌봄 △학교 교실 공간 혁신 △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3가지 테마로 전시부스를 구성하였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학습과 놀이,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교실 공간을 구현하였고, 유치원의 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과 편리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 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가 소개되었다.

교육부, 온종일 돌봄·교실 공간혁신 등 전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두드림(Do: Dream)’이라는 대학생들의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꿈을 두드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는 역할을 했다. 세종시 쌍류초등학교의 ‘천연 립밤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 황지은 학생은 “정부혁신박람회를 통해 직접 기획하고 만든 프로그램을 다양한 분들에게 선보이게 된 점이 좋았고, 교육기부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교육기부가 널리 홍보되어 더 많은 학교에서 협조하고, 교육기부자도 많이 늘어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는 ‘같이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를 모토’로 하는 정부혁신의 현장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가 지난 11월 22부터 24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터에서 열렸다. 정부혁신박람회는 그동안의 정부혁신 성과와 우수사례를 ‘사회적가치’, ‘디지털서비스’, ‘국민 참여’ 존으로 나누어 전시 부스를 운영했다.

‘사회적 가치’ 존의 다함께 행복관에서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전시가 이뤄졌다. 디지털관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기술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의 일상이 전시되었다. 모두의 참여관에서는 국민참여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이 소개되었으며, 체험관에서는 스마트 보조기기 체험과 공무원 역할체험 등이 운영되었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의 정부혁신 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함께 포용하는 교육’을 주



소담중, 전국 중·고생 심폐소생술 대회 ‘대상’



소담중학교(교장 황덕수) 학생들이 전국 중·고등학생 심폐소생술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소담중

학교 팀(박경숙 교사, 유하은, 김혜인, 심의정, 김민지 학생)은 지난 11월 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 전국 중·고등학생 심폐소생술 대회에 세종시 대표로 참가해 대상을 수상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경남교육청 및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학교 구성원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동기 유발과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전 대회를 거쳐 대상을 받은 중학교 17개 팀, 고등학교 17개 팀 등 총 136명의 학생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전국 대표 선수들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응급 대처 과정인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선보였다. 대회에 참가한 유하은(3학년) 학생은 “5분의 기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몸으로 익히려면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번 계기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운 것 같아 보람 있었다.”라며 “앞으로 의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장래 희망도 밝혔다.



부산 시내 학교에 구축되는 ‘첨단미래교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안에 초·중학교 10개교에 ‘첨단미래교실’을 구축 완료한다. 일반 교실을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스마트 학습기기 및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등 학교별 특색있는 첨단미래형 학습공간으로 꾸민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과 스마트기기, 태블릿 컴퓨터, 크롬북 등을 통해 다양한 수업 및 학습활동을 펼칠 수 있다. 동아중, 천마초, 포천초, 태종대중, 용수중, 분포중, 강동초,

석포초 등 8개교는 첨단미래교실을 만들어 학습에 활용하고 있고, 부곡초와 서명초 등 2개교는 구축을 완료하고 다음 달 문을 연다.

지난 11월 18일 문을 연 태종대중의 ‘섬술마루’는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탐색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1인 방송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미디어 공간, 학생들의 휴식공간인 카페,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극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같은 달 19일 개관한 용수중의 ‘첨단미래 ZONE’은 학습주제 및 활동별 토의·토론 프로젝트학습을 할 수 있는 꿈터와 학교 내 버스킹 학습의 끼터,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배움터 공간 등을 조성했다. 이 교실은 공간혁신에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것으로, 미래의 교실수업을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독특한 학습공간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0년에도 12개 학교에 첨단 미래교실을 구축할 계획이다.



동진여중 학생들이 직접 꾸민 '학생의 날' 행사



동진여자중학교(교장 박정규)가 특별한 '학생의 날' 기념 행사를 펼쳤다. 학생들은 학생의 날(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본연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사회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학생들의 자세와 역량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진여중 학생회(회장 김민하)는 제90회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일제에 항거한 학생들을 기념하고 애국심과 자율역량을 길러주고자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을 '학생의 날 행사 기념 주간'으로 선포하였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학생들의 태극기', '너의 목소리가 보여', '학생의 날 포토존', '기념품 디자이너'

등 총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 중 5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학생의 날 관련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이번 학생의 날 행사는 학교 교육과정과는 독립된 행사로 순수하게 학생회의 힘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진여중 학생회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학생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고, 1·2학년 학생 중 공모를 통해 위원을 선발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즐겁고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었다.

이번 학생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조새봄 학생(2학년)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친구들이 즐겁게 참여해주는 모습을 보니 일주일일 정말 행복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학생의 날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생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장성 삼서초, 화상수업으로 대만과 문화 교류



장성 삼서초등학교(교장 김형욱) 5학년 학생들이 교실 속 스크린을 통해 대만 타이페이에 위치한 Zhiqing 초등학교 학생들과 화상으로 대화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교실 속 세계여행'이라는 학급 특색을 살려 다양한 나라와 국내 여러 지역의 교실과 화상으로 연결해 문화를 교류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다. 지난 1학기에는 충남 홍성, 경기도 광명, 인천광역시 등의 국내 교실과 화상으로 연결해 지역문화를

교류했으며, 2학기에는 다른 나라와 함께 각국의 문화를 영어와 사진자료 등을 통해 이해했다.

지난 11월 5일 4교시에 진행된 대만과의 화상수업은 삼서초 5학년 학생들의 아리랑 공연과 대만 학생들의 전통 동요 부르기로 시작됐다. 이어 서로의 대표 문화와 학교생활을 사진 자료로 보여주며 영어로 소개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몸짓언어를 활용해 질문하거나 답하기도 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만 학생들도 우리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질감을 느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발표 자료를 보며 감탄하고 박수를 치며 많은 교감이 됐다."라고 말했다. 5학년 담임 서우연 교사는 "학생들이 화상수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여러 국가 및 지역의 교실과 문화·정보를 교류하며 더 큰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급식 어때요? 우리가 만든 한 끼



충남도교육청은 건강한 식사습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직접 개발하고 제안하는 건강한 급식 식단을 발굴·보급하기 위해 최근 '학생 건강밥상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중·고생 각 15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각 팀은 지역 식자재 활용 로컬밥상, 향토·절기에 맞는 전통밥상, 식품 알레르기 개선을 위한 안심밥상, 다문화 음식체험을 위한 세계밥상이라는 주제로 재료비·조리법 등을 고려해 학교급식에 적용 가능

한 식단을 구성했다. 이날 대회에는 충청도 할머니들의 요리 비결을 담은 <요리는 감이여>의 할머니 저자 2명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부부와 특별팀을 구성해 책에서 소개한 요리를 직접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경연대회와 함께 천연 식자재의 색감과 질감을 활용한 푸드아트 전시와 체험, 충남 지역 학교급식에 사용되고 있는 전통장의 우수성과 맛을 알리는 체험 코너, 사과로 전하는 용서와 감사의 기회인 사과데이도 운영하였다.

공주생명과학고 이성문(2학년) 학생은 "우리가 만든 메뉴가 정말 급식에 나온다면 또래 친구들이 좋아하고 인기도 많을 것 같다."라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한 밥상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대회를 통해 바른 식사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동중, 학생들이 직접 만든 그림 동화책 ISBN 등재



평동중학교(교장 서민호)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양성평등, 통일, 환경, 인성, 생명존중, 학교 폭력, 가족사랑, 동물 사랑 등을 모듬별 토의 주제로 선정했다. 학생들은 선정한 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구상,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 스케치 및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토의와 토론을 통해 작품을 완성했다.

폭력 예방을 위한 '신의 아들', '채원의 방관 일기', 가족 사랑을 담은 '한가한 가족의 가족같은 일상', 양성평등을 담은 '꿈 네

마리', 통일 교육을 위한 '오랑마울과 우탄마을', 진로로 고민하는 아이들을 위한 '꿈을 찾아서', 바다 오염의 경고를 담은 '쓰레기 쓰나미의 습격', 동물 사랑을 전달한 '가족' 등 총 8편의 하드 커버 책과 작은 아코디언 책으로 선보였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그림 동화책을 스스로 읽어보며,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작가들의 의도를 파악하며 그림과 같이 감상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평동중학교 서민호 교장은 평소 소장한 그림책을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는 등 그림책 관련 이벤트를 펼치기도 했다. 국어 교과 10분 독서 시간에 선생님들과 학급 친구들에게 그림책 읽어주기, 그림책 속에 있는 그림 그리기, 한 줄 느낌 쓰기 등의 활동이다. 서민호 교장은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고 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과 함께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

2030 대한민국 교육과 우리의 미래 ⑤교원수급은 이상 없나? 교원-교육-인구정책 일관성 유지하는 큰 틀의 논의 필요

글 쓰는 순서

- ① 신입생이 사라진 학교
- ② 늘어나는 폐교, 마을 속으로
- ③ 학습복합공간으로 거듭나는 학교
- ④ 지방교육 재정의 해안
- ⑤ 교원수급은 이상 없나?

203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최근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2019.11.6.)를 열고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요지는 정부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경향에 따라 교원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수급과 관련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질 제고 등을 고려해 수급기준을 조정하고, 교원수급과 연계된 양성기관평가를 통해 양성 교육의 질 제고와 교원양성 규모를 지속해서 축소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설정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2019-2030)’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신규채용을 추진하고, 2031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교육부가 2018년 4월 30일에 발표한 ‘중장기 교육수급계획’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출산율을 고려할 때 전체 초·중등 학생 수가 2018년에 비해 2030년에 약 110만 명(19.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워 교직 안정화를 꾀하고자 한 것이다.

수급계획의 기본방향은 정부 임기 내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매년 신규 채용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연차별 증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등교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22년에 OECD 평균 수준(15.2명)에 도달하도록 2019년에 최대 4,040명에서 2030년에 3,500명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책정하였다(14~24% 감축). 중등교원은 2018년에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3.1명)에 도달하지만,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신현석님은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사범대학장 및 교육대학원장을 겸하고 있다. 한국교육정치학회(2012~13), 한국교육학회(2013), 한국교육행정학회(2016)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교육학회 부회장, 교육부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의 교원정책>, <한국의 교육개혁정책> 등이 있다.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평균 수준보다 개선된 11명대를 유지하고자 2019년에 4,460명에서 2030년 최대 3,000명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관리한다(33~42% 감축).

안정적 교원수급의 기틀 마련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최대 장점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드디어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함께 항상 논란과 갈등의 대상이 되어 왔던 교원수급 문제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안정화를 위한 법정화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물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행간에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양성체제의 구조 개편,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한 양성인원 감축,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 완화,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등 어려운 문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발표로 인해 교원수급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함께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98명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였다. 급기야 올해 3분기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88명으로 발표되면서 ‘인구 절벽’으로 ‘저출산 재앙’이 현실화되어 이제는 저출산 문제가 ‘발등의 불’이 아니라 ‘지방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에 이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마스크는 연일 쏟아내고 있다.



특히 통계청이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인구 자연감소 시작 시점이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기재부가 주관하는 인구정책 T/F는 교원수급 전망을 보다 현실화하여 현재의 중장기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의증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기재부의 강도 높은 교원 수 조정에 대해 교육부의 기존 계획과의 배치,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발표, 현장 교원 수 감소의 신호탄,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경제 논리적 방안, 디테일이 부족한 경제부처의 일방적인 수급정책 조정 등의 비평과 불만의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돌발 변수를 예측해야 하는 교원수급정책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의 면면을 점검하기 위해 교원수급정책의 정도에 해당하는 원리와 이론을 살펴보자.

한마디로 교원수급은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을 공급하는 것이다. 필요한 교원 수를 양적으로 보충하여 배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수급을 정책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원수급정책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수급의 역동적인 맥락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와 예지에 가까운 해석이 요구된다.

우선 교원수급정책은 교원공급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양성기간이라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짧게는 4년을, 길게는 10년 이상을 예측해야 한다. 여기에 교원 수요를 결정

교원수급정책이 어려운 이유는 교원수급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적기에 공급하는 양적인 균형의 유지뿐 아니라

공급되는 교원의 질 측면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요인들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돌발 변수에 의해 갑자기 많은 공급을 요구할 경우 적기에 필요한 수만큼 교원을 공급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우리는 과거에 교원정년 단축, 교육여건개선사업, 연금법 개정 및 근무여건의 열악함으로 인한 교원 명퇴자 증가 등을 경험한 바 있다. 반대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교·학급·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원수요가 줄어들어 공급을 줄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교원수급을 계획할 때 가급적이면 예기치 않은 변수나 운영의 묘를 발휘할 여건을 최소화하고, 만일 불가피하다면 이 또한 수급계획이라는 큰 틀 속에 포함시켜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원수급은 인적자원 계획 그 자체

교원수급정책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교원수급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적기에 공급하는 양적인 균형의 유지뿐 아니라 공급되는 교원의 질 측면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교원양성기관에 어떤 수준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어떤 과정을 통해 교육하며, 교원자격을 어떻게 부여할지에 관한 양성과 자격의 질적 우수성을 담보하는 설계가 교원공급의 원천이다. 또한 신규 임용 시 질적으로 우수한 예비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입직한 교원이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 능력을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연수를 받기도 하고 인사이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교원수급계획은 교원정책에 있어서 인적자원계획 그 자체이자 정책의 총체적

시발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교원수급정책은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질적으로 우수한 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합리적인 계획의 과정으로서 교원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 정의에는 교원정책에서 교원수급의 우선적·관계적 고려, 교원수급에 관한 합리적인 계획 과정, 질적으로 우수한 교원의 충분하고 안정된 공급이라는 교원수급정책의 세 가지 원리가 압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교원수급정책에서 이러한 원리가 잘 지켜진다면 이상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교원수급정책이 가진 고유한 특성 때문에 수요와 공급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시차가 발생하고 돌발 변수에 따라 정확한 수급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교원정책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고 관계하는 정책을 포괄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셋째, 교원의 질을 유지하면서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정책 설계의 디테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부 유관 부처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수급 논의

기획재정부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에 대해 매스컴이 제기한 비판적·부정적 보도내용은 교육부의 즉각적인 해명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은 범부처 협의를 통해 2020년에 마련할 예정이며, 2031년부터 교사 수를 줄인다는 것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할 때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인들(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다양한 학교 운영 등 미래 교육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준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리하여 현재 교육부는 교원정책과에서 미래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교원 및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 책임부서로서 그리고 부처 간 협력과 공조가 요구되는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교원수급계획과 기준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기한 교원수급정책의 세 가지 원리는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제이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충분조건이며, 정책이 처한 네 가지 현실적 어려움은 정책 추진의 제약요인이자 해결해야 할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새로운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원수급정책의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 실제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현상들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화하여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는 것이다. 교원수급정책의 주관 부처는 교육부이지만 교원수급은 교육당국과 교육계 그리고 유관 부처 등 다양한 국가사회의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구

성 요소 간 협력과 공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원정책→교육정책→인구정책 일관성 유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네트워크상 관계의 작동 내용과 방식을 체크리스트화 하여 교원수급정책 시스템의 다이내믹스를 수시로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체크리스트는 종래 정책 추진과정에서 큰 단위의 업무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부분의 성과를 전체 정책의 성공으로 환원하는 용도로 국한되지 않는다. 부분에 해당하는 과업과 운용 방식에 대한 확인을 통해 교원수급정책의 큰 틀, 더 나아가 교원정책, 교육정책 전반 그리고 인구정책이라는 상위 정책 시스템의 큰 틀에 일관성 있게 부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일컫음이다. 아울러 차제에 지금까지 교원수급정책을 폐쇄적인 시스템 속에서 고립된 단위과의 책임 업무로 국한하여 보는 부분적·환원적 과오를 또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교원수급의 문제를 단지 교원 수의 감축 문제로 단순화하여 보는 것은 정책이 자칫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게 하는 달콤한 유혹이자 함정이다. 이 함정에 빠지는 순간 정책은 이상보다는 현실을 쫓게 되고, 현실의 요구와 비판에 정도되어 이해에 부합하는 기능중심의 정책방안 마련에 몰두하게 된다. 그리하여 다수가 만족하거나 적극적인 이해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정책의 본래 목표는 왜곡되고 형식만 남게 된다. 새로운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⑤

탁 쌤과 산골 학교 아이들의 좌충우돌 한 해 살이 웅크리고 들여다보는 그것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 만나는 아이들과 지내는 게 안 쉽지만, 올해는 유난히 헤맨다. 까닭은 내가 나이 든 선생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올해 만난 6학년 남자들의 세계가 나와 많이 다르다는 것. 나는 현실 세계가 중요한데, 아이들은 사이버 세계가 중요하다. 나는 아이들이 핸드폰 세상에서 헤쳐 나와 두 손 두 팔 활활 활개 치길 바라지만, 아이들은 고개 숙이고 두 손 꼭 모아 쥐고 핸드폰 화면 속으로 웅크리기를 원한다. 금요일 오후 수업 마칠 즈음이면 아이들이 뜬 얼굴로 떠벌인다.

“크크크 토요일 일요일 밖에 안 나갈 거임. 계속 게임만 할 거임.”

1학기 때는 핸드폰 문제로 학생회의 자리에서 공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그때 일을 기록한 글 한 편.

3, 4, 5, 6학년이 한자리에 모여 6학년 저격 부족 회의를 시작한다.

“6학년이 핸드폰 해요.”

“6학년이 게임하고 야동 봐요.”

6학년, 치명타 999.

방어, 6학년이 말합니다.

“이제 초등학생 얼마 안 남았는데 핸드폰 하게 그냥 놔두세요. 자유롭게. 프리덤.”

그러나 두 번째 공격, 5학년이 말합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얼마 안 남았으니까 6학년은 담배랑 술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6학년이면 동생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6학년 기절, 썩. (6.4 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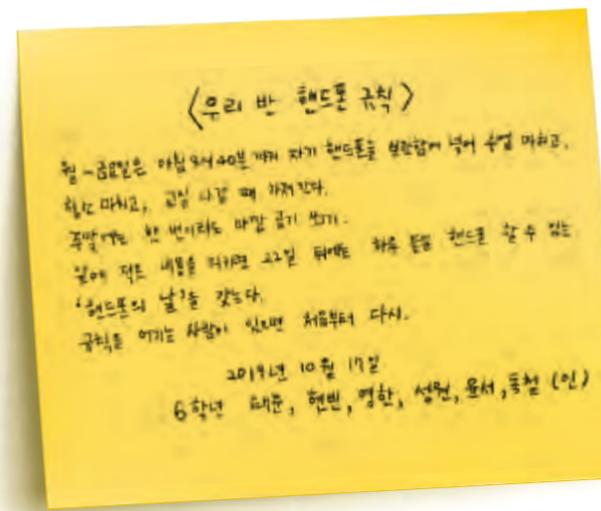
회의 내내 찢찢 당하는 녀석들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다. 게임을 해? 야동을 봐? 어째서 그게 아니라는 변명조차 제대로 못 한단 말이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동생들을 향해 고개 숙여 말했다. “담임인 제 잘못입니다. 이제부터 6학년은 교문에 들어서서 순간부터 핸드폰 끄게 하겠습니다!”

반 아이들과 나 사이는 더욱 서먹해졌다. 내가 아침에 교실 문 열고 들어서면 손에 꼭 쥐고 있던 뭔가를 후닥닥 감춰왔다. 아예 수업 시간 될 때까지 교문 밖 어딘가에 숨어있기도 했다. 나라는 인간은 얼마나 부담이 되는 몸인가, 날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점점 지나면서 아이들은 내가 미적지근 우유부단 쉬운 사람이란 걸 알아차렸고, 약한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말쑥하게 뜬 두 눈을 깜빡거리며 “음악 좀 들어도 돼요?” 이러는데 그 예쁜 눈을 보며 어찌 차가운 말을 내뱉을 수 있겠나. 머뭇거리는 틈을 타서 음악 듣고 게임하고. 애뜻한 목소리로 “검색 좀 할 게 있는데요.” 이러면 또 흔들리는 수밖에 없고. 축구는 귀찮고, 뽀박질도 싫고, 몸은 날마다 불어나고, 닫힌 공간에 박히기를 좋아하고.

다시 회의를 열었다. 핸드폰한테 자유를 달라, 어느 하루를 정해서 맘껏 하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한 달에 한 번이라면 생각해볼 수도 있다 했고, 아이들은 2주에 한번은 되어야 한다고 우겼다. 서로 반반씩 손해 보는 거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사인한 문서를 보관함에 넣었다. 녀석들은 ‘개이득’이라며 입이 귀에 걸렸다. 순진하기는. 나야말로 손해 아니다.



어차피 슬금슬금 하던 핸드폰, 하루에 10분씩 눈치 핸드폰 시간 곱하기 22일이면 220분. 이 정도면 전담 시간 뺀 나머지 시간을 핸드폰 시간으로 허용해도 손해 아니다. 거기다가 녀석들은 결코 이 규칙을 지켜내지 못하리란 예상. 누군가는 정해진 시간을 넘겨 보관함에 넣을 테고, 누군가는 점심시간에 몰래 손에 쥐기도 할 테고, 그러면 ‘핸드폰의 날’은 22일 뒤가 아니라 40일 뒤, 50일 뒤로 무한정 밀려날 것이다, 이게 내 계산.

당장 처지가 바뀌었다. 나는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권했다. 규칙을 어기는 게 나한테 유리했고, 아이들은 그 반대였다. 사흘 뒤 핸드폰을 17초 늦게 보관함에 넣은 아이가 생겼다. “고마워.”

‘핸드폰의 날’은 25일 뒤로 밀려났다. 아이들이 저들끼리 대책 회의를 열어 핸드폰에서 손 떼는 시간을 앞당겼다. 정해진 시간 5분 전에 미리 보관함에 넣자고. 쉬는 시간에 내가 윤서한테 다가가서 귀에 대고 속삭였다.

“윤서야, 게임해. 심심하잖아.”
윤서가 싫다고 한다. 내가 주머니에서 핸드폰 장려금 500원을 꺼내 건네며 다시 권했다.

“췌, 보는 사람 없어. 비밀 지킬게.”
윤서가 딱 잘라 굿는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들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저에게 만 원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비싸다. 적당한 때를 노려서 아이스크림 한 개 값 정도로 다시 협상을 볼 예정이다. 크크크. 결국 ‘핸드폰의 날’이란 건 상상 속에만 있는 날이 되는 것이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달력을 한 장 넘겨서 하나 둘 셋 넷..... 규칙을 정한 날로부터 22일하고 사흘. 그날은 오고 말았다.

“불꽃 독수리!”
“크크크크.”

“아아악 으윽. 야, 나 살려 봐. 짹짹이한테 죽었어.”
교실 한가득 나를 불행하게 하는 웃음꽃이 피고 말았다. 처음이니까 내가 일부러 허술하게 봐준 탓이다. 아이들은 다음번 핸드폰의 날을 기대하지만, 그날은 결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날이다. 사실, 내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크크크.

“애들아, 게임을 해야 머리가 좋아진대.”
“바닥에 드러누워 천장만 보지 말고 손에 뭐라도 쥐란 말이야.”

“요즘 뜨는 음악이 뭐더라?”
“.....” ㉠



필자는 1968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같은 마을에서 살며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현재 전교생이 39명인 조산초등학교 산골 아이들과 산과 바다를 누비며 작지만 확실한 교육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학교상담 전문가가 전하는 우리 아이 심리 자살하고 싶은 아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10대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 역시 자살이다. SNS에는 자해 인증 샷을 올리는 10대들의 게시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가정불화, 입시 스트레스 등으로 삶에 대한 냉소가 점점 강해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은
언제 사라질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걸 깨달을 때,
그래서 이 무의미한 세상을
견딜힘이 생길 때가 아닐까?

문제 민수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다. 일요일 새벽, 민수는 아파트의 자기 방 창문을 열고 밑으로 뛰어내렸다. 지상에 가까웠을 때 나무에 걸려 두어 바퀴 회전하면서 화단에 ‘쿵!’ 하고 떨어졌다. 4층 이상에서 떨어지면 사망할 확률이 높지만, 다행히 민수는 죽지 않았다. 전날 1층 주민이 나무를 심으려고 구덩이를 팠다가 일단 부드러운 흙으로 메워놓은 곳으로 떨어져서 충격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온몸이 으스러져서 병원으로 실려 갔다.

그 후 수없이 많은 수술과 투병 생활이 길게 이어졌다. 부모님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자살하려다 다치면 보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계도 기울었다. 민수네 가정은 민수의 자살 시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만큼 모든 상황이 뚜렷이 바뀌었다.

진단 민수에겐 무슨 힘든 일이 있었을까? 이미 대답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도 했지만, 본인도 말하지 않았다. 부모님이나 담임 선생님도 더 심한 자극이 될까 봐 물어볼 수 없었다. 그 대신 상담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문해서 대화를 이어나갔다.

어느 날 민수가 “선생님, 양자역학에 대해서 아세요?” 하고 물었다. “나는 잘 몰라. 네가 설명 좀 해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분자들의 우연한 결합이에요. 사는 건 분자들의 결합이고, 죽는 건 분자들의 해체예요. 그래서 죽거나 살거나 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전 지금도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제가 죽었더라면 엄마, 아빠가 슬퍼하겠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에겐 의미가 없잖아요.” 상담 선생님은



민수가 강의하는 양자역학에 대한 긴 강의를 들었다. 자세히 들어보면 양자역학을 빙자해서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말하는 셈인데, 끝까지 들어봐도 민수는 자신의 생활과 연결해서 말하진 않았다. 그래서 왜 죽으려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민수는 친구가 없어요. 다른 아이들이 말을 걸면 조롱하는 말투로 이상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못 하면 비웃으면서 대화를 끊어요.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해서 다른 애들은 대꾸도 못 해요. 별명이 프랑켈슈타인인걸요.” 이어 민수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제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느라 어떻게 지내는지 거의 몰랐어요.” 그때 민수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 문제로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어요.”라고 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였을까?

민수 어머니가 설명한 내용은 이랬다. 민수 아버지는 외아들이어서 어머니를 집에 모셨는데, 그때부터 민수 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셨다. 뭐 하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직장에까지 찾아와서 민수 어머니를 불러내서 혼을 내셨다. 민수 어머니가 되도록 집에 늦게 들어오면서 시어머니를 피하자, 이제는 민수를 심하게 구박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 중 하나는 ‘병신 같은 게, 나가서 죽어라.’였다. 민수는 창문에서 뛰어내리기 전날,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에게 예쁜 손편지와 선물을 하나씩 마련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할머니에게는 선물도 없이 ‘시골로 내려가서 사세요.’라는 말만 써놓았다는 것이다.

지도 학교에서는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민수는 친구가 없어서 정서적으로 고립되었다. 둘째, 할머니로부터 오랫동안 구박을 받아서 억울함이 쌓였다. 셋째, 엄마는 아들을 보호해주지 못했고, 아빠는 아들과 의사소통을 안 해서 의지할 곳이 없었다. 넷째, 슈뢰딩거의 양자역학과 니체의 허무주의를 익히면서 죽고 싶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민수 부모님이 이런 의견을 전해 들으시더니, 할머니를 시골로 내려가게 하고 저녁 시간에는 엄마가 일찍 들어와서 민수를 돌봤다. 반려동물을 분양받아 생명을 돌보는 일의 소중함도 경험하도록 했다. 주말이면 삼촌네 밭에 가서 토마토와 딸기도 수확했다. 민수로서는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여전히 골격이 여기저기 뒤틀리고 간신히 절뚝거리면서 걷지만, 민수의 얼굴에 자주 웃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은 언제 사라질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걸 깨달을 때, 그래서 이 무의미한 세상을 견딜힘이 생길 때가 아닐까? ②

사춘기를 어렵게 보내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

5학년 담임을 맡고 있어요.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데도 정말 힘이 드네요. 사소한 문제로 아이들 간의 다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학년말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가며 슬기롭게 보낼 방법 없을까요?



학년말이 되면서 선생님들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오는 글입니다. 1학기 때엔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던 아이들이 헤어질 때가 다가와 정을 떼려 그러나 이젠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불만부터 터져 나오고 열심히 준비한 활동도 시작도 하기 전에 “아, 그거 재미없는데...”,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말부터 합니다. 상처받은 선생님은 활동을 멈추고 또 하고 나선 늘 후회하는 잔소리를 한가득 퍼부어드립니다. 5, 6학년 고학년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며 알게 된 것은 고학년은 1학과 2학기가 다르고, 5학년과 6학년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5학년 2학기부터 사춘기를 맞는 아이들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보여 교실의 분위기는 급격히 나빠집니다.

‘예방’을 할 수 있는 학기 초와 달리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즈음, 어떻게 하면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며 헤어질 수 있을까요?

01 훌륭한 교사는 자신을 따르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집중한다.

학년 말, 학급 운영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의 저자 토트 휘태커는 그의 책에서 ‘훌륭한 교사들은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보통의 교사는 규칙에 초점을 맞추고, 가장 무능한 교사는 규칙을 어긴 결과, 즉 벌칙에 집착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찾아옵니다. 서투른 교사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훌륭한 교사는 자신을 따르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집중합니다. 종종 서투른 교사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한두 명의 아이에게 집중하며 모든 아이들을 날 선 칼 위에 있는 긴장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제 그동안의 잔소리나 훈육으로 크게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지적하느라 보내는 시간보다 따르는 아이들의 바람직한 변화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은 “난리를 치고 말을 안 듣는 아이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울고불고

해도 내버려 두다 그 아이가 하루에 딱 한 번 의자에 바르게 앉아있으면 정말 폭풍 칭찬을 해준다.”라고 조언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누구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한데 이런 마음을 보듬어 줄 어른이 곁에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방과후에 소통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심끌기’로 일관하며 왜곡된 방식으로 사랑을 갈구합니다. 남은 얼마 동안, 아이의 행동이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커다란 사안이 아니라면, 집중하지 않길 권합니다.

02 중성행동과 피해행동을 구별해 대응한다.

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된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아들러는 교실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권장행동과 중성행동, 피해행동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중성행동’은 학급 공동체에 폐를 끼치지 않는 않지만, 적절한 행위가 아닌 경우로 대개 ‘문제행동’으로 규정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하지 않는 경우, 물건을 잘 잃어버리거나 행동이 눈에 두드러지는 경우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그런 행동은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라 적절하지 않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의지를 존중해야 하며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이의 행동 중에서 피해행동과 중성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행동에 대해서는 아이를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누는데, 고쳐지지 않을 경우 선생님과 아이만의 사인을 정합니다.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려놓는다거나 그 아이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23 매직>에서 토마스 펠런 박사는 아이가 문제행동을 했을 때 화내거나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손가락으로 카운팅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야!”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학생이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학급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행동을 보인 학생에게는 자기 행동에 스스로 책임지고 생각할 시간을 주고 교사는 남은 시간을 다른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03 죄책감이 수치심으로 자라지 않도록 잘못된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오래전 가르치던 아이가 쌍욕을 하고 “이따위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 외치며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 후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나온 아이에게 아빠가 어떤 분이냐고 물으니,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라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때 “엄마와 어제 통화하는데, 엄마가 네 모습이 아빠 모습과 똑같다며 우시더라.”라고 말하니 아이는 평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욕해도 참도록 노력해보자. 때론 잘 알 되도 괜찮아. 선생님이 네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말해줄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죄책감과 수치심은 모두 도덕적, 사회적 기준의 위반과 관련된 정서지만 죄책감은 주로 행동에 초점이 있는 반면, 수치심은 사람 전체에 초점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나는 잘못된 행동을 했어”처럼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죄책감이 반복되면 수치심으로 자랍니다. 수치심은 “어차피 난 안 돼,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처럼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으로 자라기 쉽습니다.

교실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이가 배우는 건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이를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존중은 존중으로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잘못을 대하되 아이들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칫 죄책감이 수치심으로 자라지 않도록 “괜찮아, 때론 안 될지도 몰라, 그건 아주 당연해!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줄게.”라는 자세를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남겨진 짧은 시간, 더욱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 ☺

비상을 선물하는 땅, 서천

잎 진 나무는 회갈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소슬거리는 바람은 겨울의 도래를 알러온다. 찬 계절이 완연해지기 전에 바람의 울림을 귀에 담아 뒤야겠다. 가을의 끝자락이 남아있는 청량함으로 시끄러운 귀를 잠재워야겠다. 숨 고르기가 필요한 연말, 월동 준비를 위해 서천으로 간다. 비상하는 새의 몸짓을 눈에 담을 수 있는 곳, 서걱거리는 갈대 소리를 가슴에 흠뻑릴 수 있는 곳, 고요히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하는 파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 12월의 여정은 서천이다.

금강 강줄기를 벗 삼아 펼쳐진 갈대밭이 자리 잡은 신성리에 들어선다. 이곳은 폭 200m, 길이 1km, 총면적 250,000㎡ 규모를 자랑하는 신성리 갈대밭은 갈대와 억새, 금강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바람 소리를 따라 갈대밭으로 간다. 사그락사그락. 기분 좋은 울림이 발길을 붙든다. 소리는 들리는데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 고개를 돌려본다. 갈대와 억새만 점연적계 하늘거리고 있을 뿐, 바람은 자취가 없다. 흠길 소리, 바람 소리, 갈대 소리, 강물 소리. 자연의 소곤거림을 따라 발을 옮긴다. 의미도 알 수 없고 출처도 불명확한 이 울림이 왜 이토록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인지. 찬 겨울바람에서 왜 따뜻한 훈기가 느껴지는 것인지. 갈대와 더불어 걸으며 이 빈(空)이 그리웠음을, 소리 없는 소리가 빚어내는 울림이 절실했음을 뒤늦게 알아챈다. 갈대 바람에 안겨서야 한 해가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갈대밭에 펼쳐진 지난 시간이 고이 가라며 손 인사를 건네온다. 핑 도는 눈물을 삼키며 인사를 건넨다. 값진 추억으로 내년에 다시 만나자며.



갈대밭을 나와 이른 곳은 한산모시 마을이다. 모시 나뭇가지 껍질로 만드는 모시는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직조된 것으로 현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에 이름을 올려두고 있다. 까다로운 공정과 번거로운 수작업을 거쳐야 하는 모시 짜기는 그 정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2011년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바야흐로 한산모시가 단순한 옷감 제조를 넘어 예술로 승화되고 있는 것이다. 염색체험, 침선장 체험, 모시 날기 매기 등이 진행 중인 공예 공방을 둘러 체험관으로 들어간다. 부채 하나를 만들어 들고 모시 짜기와 모시 짜기 시연을 눈에 담는다. 전시관에 들어가 옷에 담긴 빛깔과 씨실 날실의 영감이 빚어내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비단처럼 곱지도 않고 삼베처럼 거칠지도 않은 모시옷에서 투박한 고급스러움을 본다. 전시장을 둘러보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시간이 더 걸려도 괜찮다, 품이 많이 들어도 괜찮다, 그게 모시로 거듭나는 길이라면'이라는 속삭임을 듣는다. 이 서툰 건넌에 위안이라는 이름을 붙여두고 다음 목적지로 향한다.

40여 종 50여 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드는 곳으로 알려진 금강하굿둑을 앞에 두고 있다. 철새의 군무를 포착하려 설새 없이 셔터를 누르는 사람들. 그사이에 멍하니 서서 새들의 움직임을 눈에 담는다. 유려한 새들의 춤사위가 자연이 그려내는 붓질이 되어 눈동자에 어린다. 날아올랐다 내려앉고 펼쳐졌다 겹쳐지고 머물렀다 돌진하고, 새들의 날갯짓에는 한계가 없다. 강과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새들의 춤사위를 마주하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져 온다. 양 날개를 한껏 펼쳐두고 바람에 몸을 맡겨 본 적이 있었던가, 비상이 주는 두근거림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가, 모든 걸 내려놓을 각오로 도약을 시도한 적은 있었던가. 방울져 흐르는 눈물 같은 새들의 말을 머금은 채 국립생태원으로 향한다.

수십 개의 축구장 크기의 국립생태원에는 4,500여 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에코리움, 습지 생태원, 고산 생태원, 사슴 생태원 등 기후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재현해 놓았다. 에코리움은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유려한 새들의 춤사위가
자연이 그려내는 붓질이 되어
눈동자에 어린다.

1 한산모시관
2 금강하굿둑



34 국립생태원

극지관의 세계 5대 기후대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여기에서는 2,400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 고라니, 담비, 노루, 긴팔원숭이를 친구 삼아 에코리움으로 간다. 상설전시관과 어린 왕자 전시실을 거쳐 열대관으로 들어선다. 보아뱀과 열대 식물들을 눈에 담은 후 목도리도마뱀과 선인장, 사막여우 등이 있는 사막관을 지나온다. 바오밥 나무를 만날 수 있는 지중해관을 거쳐 살모사 등이 있는 온대관에 이른다. 극지관의 자작나무 숲길 너머에서는 뿔귀를 만난다. 숨을 고르며 들어선 전시관의 명들여가는 지구 이야기를 마주하고 서서 상생을 반추한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에게 터전이 되어주는 일이지 않을까 하는 자문을 하며 습지 생태원과 고산 생태원, 하다람 놀이터를 지나 생태원을 나온다.

마지막 여행지는 스카이워크다. 기벌포 해전 전망대로도 불리는 스카이워크는 송림 숲과 바다의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허공중 도보의 짜릿함을 선사하는 스카이워크는 시인 하늘길, 철새 하늘길, 바다 하늘길로 구성되어 있다. 느긋하게 송림을 지나 해변을 만난다. 바닷바람이 솔향에 섞여 기분 좋게 코를 간질인다. 바다와 나란히 걸어 이른 스카이워크에서 장관을 선물 받는다. 발아래에는 바다와 땅이 머리 위에는 하늘이 있다. 그리고 해양과 대지와 우주가 만나 새 시간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내가 서 있다. 어제까지의 이야기는 일단락되고 내일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것이라는 확신이 나를 관통한다. 바다가 되었던 땅이 되었던 하늘이 되었던 시간은 어제와 다름없이 나를 북삼아 또 하나의 서사를 써나가기라.

양팔을 펴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비상하는 새처럼 바람을 갈라본다. 수평선 가운데서 사지를 쪽 뻗어보는 것, 그것이 습차게 달려온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되어 가슴에 안겨 온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속으로 이상의 <날개>의 마지막 구절을 중얼거린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 꾸나 라며 값진 선물을 준 서천에 답장을 부친다. ㉠

2019 학업성취도 평가 발표...중·고생 영어 성취도 상승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국 중3, 고2 학생 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평가로 지난 6월 실시됐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교과별 성취수준은 전년대비 중·고등학교 모두 영어의 학업성취도는 상승하였고, 국어, 수학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성별 성취수준은 중·고등학교 모두 여학생이 전반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성취수준 차이는 중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대도시가 읍면지역에 비해 높았고, 고등학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행복도는 중·고등학교 모두 64% 이상으로 2013년과 비교해서 중학교 20.8%p, 고등학교 24.3%p가 증가하였고 특히, 중·고등학생 간의 격차가 없어졌다.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도 중·고등학교 모두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높아진 경향이 나타났다.

사망·장애로 학자금대출 못 갚으면 채무 감면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사망이나 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지난 12월 5일 입법예고 했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했으며,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해야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도 전액 면제한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4단계 BK21 사업, 지역인재 양성·연구 질 제고 집중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2월 3일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두뇌한국21(이하 BK21) 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이다. 이번 4단계 사업은 2020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7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지역대학 예산지원 비율을 3단계 수준(35%)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 단위 고급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대학원의 안정적 학업·연구 전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석·박사 과정생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그간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아 질 관리가 부족했던 대학원 교육과정도 강화한다. 4단계 BK21 사업은 사업목적과 내용에 따라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미래인재 양성사업은 기초·응용과학, 인문·사회 등 기초, 핵심 학문 분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되며,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혁신성장을 이끌 융복합 인재 지원하기 위한 신산업분야와 사회/(지역)산업 문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미래인재 양성사업에 185개 내외 교육연구단, 174개 내외 교육연구팀,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218개 내외 교육연구단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수 석·박사급 대학원생을 연간 1만 9천명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양성평등교육정책 적극 추진



교육부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심의회)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난 12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교육 분야 양성평등정책과 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수립의 2개 분과로 구성하고, 여성·인권·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이후 정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자문을 청취하였다. 올해 초·중등학교에는 양성평등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교원 현장지원단 연수를 진행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으로 교육청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립교원 징계 시 국공립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내년도에는 학생 발달단계별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과 교원용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교원 현장지원단 양성 연구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자문과 컨설팅도 강화한다. 예비교원 양성기관용 학생 예방교육 특화프로그램도 개발해 시범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성격차지수 등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OECD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있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며 "학교현장과 교육부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과 정책 실현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지난호 독자 리뷰



[특별기획2_수능 이후, 알찬 학사운영을 위한 노하우] 수능 이후 남은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학교에 등교해 마냥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학교에게도 무의미하다. 기사에서처럼 운전면허나 자격증 등 예비사회인 맞춤 프로그램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학생들이 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성년을 앞둔 마지막 시기인 만큼 학교에서 알찬 학사운영이 이뤄지도록 이러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니터단 이재은**

[꿈이 영그는 현장 '다양함' 속에서 배우는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한 학급에 2~3명 정도로 늘어날 만큼 비중이 높아질 줄 몰랐다. 기사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위해서 학교 내에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학교 외론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러한 학습 제도가 활성화되면 세계화를 위한 좋은 연결고리가 될 것 같다. **모니터단 김고운**

[우리교실, 프로젝트_행복한 인생설계 프로젝트] 진로 선택 과목에 프로젝트 수업을 도입한 것이 흥미로웠다. 자신의 진로와 인생 설계뿐만 아니라 정보처리능력, 정보윤리, 협업 능력 등 다양한 역량까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인상적이고 실제 진로 수업에서 이를 활용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전문적 공동체를 통해 서로 배우며 좀 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니터단 백송이**

EVENT

12월호 <특별기획>을 읽고
2019년 교육부의 BEST 정책과 그 이유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다음 달 5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지난호
당첨자
김동원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이춘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위옥주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32번길

발행일 2019년 12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한상신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성부
사무관 박대선 주무관 박형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대변인실 323호

편집실
편집장 이순이
기자 양지선 (객원)김혜진
사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
공정하고 편리한 **처음학교로**로
신청하세요 !!!

학부모님! '처음학교로'는 이렇습니다.

- ▶ 처음학교로는 선착순 모집이 아닙니다.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 모든 유치원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여 유아모집·선발을 해야 합니다.

우선모집 접수 11.5.(화) ~ 11.7.(목) **일반모집 접수** 11.19.(화) ~ 11.21.(목) **대기자 선발 및 추가모집** 11.30.(토) ~ 1.31.(금)